



NYT가 꼽은 가장 맛있는 라면 '신라면블랙' 14



결국 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장관 17

코스피(2일)	코스닥
▲ 2135.37 (+28.67P)	▲ 742.55 (+14.97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200.00 (-3.40원)	▼ 0.831% (-0.016%p)

체납·추징금 1000억 전두환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 지난달 조사4국 투입 이달 말까지...연장 가능성도 개인 조사로는 이번이 처음



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금융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최근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과거 전 씨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사례는 있지만, 전 씨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전 씨의 은닉재산 여부와 체납 징수 가능성은 이번 조사로 낱알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씨는 추징금 1020억 원과 국세 31억 원에 지방세 9억2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특별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전 씨가 체납액과 추징금이 1000억 원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성강문화재단에 투입, 몇 달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이번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국세청이) 소명 또는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강문화재단은 전 씨의 장인이자 군인 출신인 이규동 씨가 장학사업 명목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현재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국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기획 또는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한 만큼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성강문화재단의 이사진은 전 씨 일가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실제로 전재국 씨와 함께 한국미술연구소를 운영해 온 홍도 씨, 전 씨 소유 회사인 음악세계의 전 대표 김도 씨, 전 씨가 설립한 프랜차이즈 고깃집 운영사인 실버밸리의 현 감사장도 씨 등이다.

아울러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일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

김면수 기자 tearand76@



SK바이오팜 상장 첫날 상한가

중추신경계 신약 연구개발업체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상장 첫날인 2일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인 12만 7000원까지 치솟았다. 조정우(왼쪽에서 세 번째) SK바이오팜 대표와 관계자들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시초가 확인 후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 관련기사 15면 연합뉴스

반도체 집적도 1000배 높일 원리 찾았다

이준희 UNIST 교수팀 논문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결실...상용화 땀 '반도체 초격차' 날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제품의 메모리 성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어 산업계에 파급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이준희(사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를 100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과 소재를 발표했다.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면 전력효율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하로 크기를 줄일 수 없는 제약사항이 있었다. 반도체 소자가 한계 수준 이하로 작아지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스케일링' 이슈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의 기본 작동 원리인 0과 1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이 연구는 2일(미국 시간)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사이언스에 순수 이론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이 교수 연구팀은 '산화하프늄(HfO₂)'이라는 반도체 소재의 산소 원자에 전압을 가하면 원자간 탄성이 사라지는 물리 현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반도체에 적용해 저장 용량 한계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산화하프늄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재로, 이 현상을 적용할 경우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반도체 소형화 시 저장 능력이 사라지는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나노미터 수준에 멈춰 있는 반도체 공정을 0.5나노미터까지 미세화할 수 있어 메모리 집적도가 기존 대비 약 1000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개별 원자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은 원자를 쪼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집적 기술"이라며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반도체 소형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12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과제로 선진대 연구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 지원도 받아 수행됐다.

송영록 기자 syr@

'3D 프린팅·로봇'도 이젠 뿌리산업

10년 만에 전면 개편... 14개로 확대 뿌리기업 대상도 3만 개서 9만 개로

술을 뿌리기술로 지칭했다.

정부가 뿌리산업의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 기존 6개 뿌리기술에 3D 프린팅·로봇 등 8개를 더해 14개로 확대한다.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렸다.

부품·장비를 만들 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프린팅 △정밀 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센서 △로봇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를 추가해 14개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이

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편 배경에 대해 "현재 뿌리기업 생산액 중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 산업에 의존하며,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기술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 변화에도 취약한 편"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반영해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00억 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 6면에 계속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KFF 제7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이투데이' '포스트 코로나' K-재테크 쇼 이투데이 유튜브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etodayco.kr 7월 15일(수) 09:00~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

부동산·자산관리...코로나 이후 재테크 전략·방법 제시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15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포스트 코로나 K-재테크 쇼'를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개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은행이자 1%도 안 되는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부동산, 자산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투자지형에 대응할 재테크 전략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빠승), 81만 경제 유튜브 신사임당, 5대 시중은행 스타PB 등 8명의 부동산, 자산관리, 창업분야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전략과 기술 문제 분석도 준비했습니다. 재테크 및 금융회사 취업에 관심 있는 독자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대한민국 금융대전 사무국 (02)799-2688 사전등록(홈페이지) http://fnexpo.etoday.co.kr/ 후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서민금융진흥원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8 풀어야 할 과제-지상작담 > 4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스마트 동행'... 방역 中 中 中 생산 혁신 '스마일'

K-방역 숨은 주역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진단키트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삼성의 지원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K방역'에 한몫을 했다.

삼성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비전을 실천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뉴스를 통해 2일 공개한 5분여 분량의 유튜브 영상 '키트, 만능키를 쓰다'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사에 삼성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키트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 그간의 성과가 생생하게 담겼다.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체인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SD바이오센서'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4월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 체

진단키트 제조사에 전문가 파견 물류동선 최적화·설비 자동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 80% 향상 마스크업체도 제조물량 50% ↑

제로 운영되면서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수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에 전문가를 급파해 단기간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급형, 물류동선 최적화, 포장 공정 개선, 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현장의 비효율을 개선한 모습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삼성은 실제 5월부터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코젠바이오텍'에 전문가 16명과 함께 총 40개의 과제를 발굴해 8월 말까지 개선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생산량이 주당 5600키트에서 1만 키트로 79% 향상됐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중소기업 '솔젠트'에는 20명의 삼성전자 전문가가 파견돼 6



삼성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경험을 활용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뉴스룸

주간 개선작업을 진행한 결과 생산량이 주당 1만1900키트에서 2만571키트로 73% 향상됐다. 또 수입에 의존하던 용기도 국산화해 원가를 55% 절감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8년 8월 삼성이 발표한 180조 원 규모 투자 및 상생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각별히 챙기고 있다.

이 부회장은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을 발표하며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은 때에 마땅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해야 한다. 이번 일로 고통받거나 위기 극복에 헌신하

시는 분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스마트공장을 지원한 마스크 제조업체 4개 회사의 생산 능력이 51%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자, '상생' 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삼성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요 기업들에게까지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했다.

삼성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폴란드의 마스크 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루 2만3000개를 만들던 폴란드 마스크 제조업체는 삼성의 지원 후 6만9000개로 3배 개선됐다.

한편 블룸버그도 4일 구조성금 기부, 생활치료센터 제공, 의료진 파견 및 마스크·진단키트 생산업체 생산성 향상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호평했다.

송영록 기자 syr@

〈KT 대표〉

구현모 "5G 중심은 B2B... AI·빅데이터 등 잠재력 많아"

'GTI 서밋 2020' 기조연설

"지금까지는 모바일 통신이 B2C 중심이었다면, 5G의 중심은 B2B가 될 것이다."

구현모(사진) KT 대표는 1일 'GTI 서밋 2020'에서 '5G 현주소와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5G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함께 결합해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GTI 서밋'은 중국 주도 기술 방식 표준화 단체인 'GTI' 주최의 행사다. 매년

"다양한 산업서 활용 '블루오션' 기존 네트워크와 차별화 관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주관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의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돼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 MWC 바로 셀로나가 취소된 것에 이어 MWC 상하이도 개최가 무산되면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형태로 대체 진행됐다.

구대표는 한국에서 5G 상용화 1년이 현



이 많은 차별화된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며 "기업고객은 통신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설비 투자와 인프라 고도화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대표는 5G 기반 디지털 혁신(DX)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 5G B2B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영화 촬영 현장에 5G를 적용한 사례를 첫 번째로 꼽았다. 중소 디지털 영상 제작업체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파일을 사무실로 운반해서 작업하려면 기존 3~4일이 소요됐는데, 5G를 활용해 현장에서 1시간 안에 영상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영화 제작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중소 영화제작사의 열악한 업무 여건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다는 게 구대표의 생각이다.

의료 분야에서도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해 9월부터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해 5G 의료서비스를 공동 개발해왔다. 5G 디지털 병리 진단을 통해 수술 중 발생하는 병리 데이터를 장당 4GB(기가바이트) 수준으로 병리와 교수진에 전달해 신속하고 정확한 병리 분석이 가능해졌다.

구대표는 이 같은 5G B2B 확산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짚었다.

그는 "5G 모듈이 탑재된 B2B 단말 확대, 각 산업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기존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가치 창출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현대백화점

동행세일

6.26금 - 7.12일

힘내요!
대한민국

함께 사는 기쁨이 커지는 기회, 현대백화점이 함께합니다.

500개 브랜드, 최대 50% 시즌 오프 & 세일
중소 기업 제품 특별전, 대한민국 패션기업 지원 '코리아 패션 마켓' 등
H.Point 동행지원금 최대 5만원 증정

현대백화점 동행세일은 H.Point와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oint App 참조

“新舊산업 대립 불가피... 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언택트 사회’ 글 쓰는 순서

- ① 변화의 물결 속으로
- ②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
- ③ 풀어야 할 과제

전문가 3인 지상좌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채널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밖으로 나가 물품 구매, 외식 등을 하기보다는 배달앱, 쇼핑몰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주문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소비자 등이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소비 시장을 기존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펼쳐질 언택트 시대가 누군가에게 유독피해(긍정적 이상향)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디스토피아(부정적 이상향)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신규 산업의 대립 심화, 산업재편에 따른 일자리 상실 및 노사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투데이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흥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노동 전문 변호사 등 3명의 전문가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봤다.

- 언택트 시대로 전환될 경우 국내 산업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김소영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보 기술(IT)과 결합한 언택트 산업이 크게 부각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IT의 보편화, 발전과 더불어 언택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언택트 산업의 일부 한계는 IT가 더욱 발전하면서 극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흥준 = 기존의 유통 및 오프라인 매장이 축소되고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비단 식품 및 다양한 소매 상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언택트의 한계 IT 발전으로 극복 산업 기득권 보장 댄 혁신 멀어져 실직자 위한 직업정보·교육 절실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가령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근로자를 매개로 한 공장 가동을 줄이는 등 제조업의 자동화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최근 원격진료에서 보듯 기존 기득권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김소영 = 기술 발전에 따라 신산업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산업 발전은 자체 산업 성장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준다. 따라서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인정해 기술 발전, 혁신,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정흥준 = 디지털 기술 발달과 인공지능 첨단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주기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 수석위원

미래 제조업, 자동화 비율 늘어나 원격진료 갈등 줄이며 연착륙해야 노동분야 법·제도 안전망 구축을

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 산업 재편은 불가피하다. 원격진료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이며, 자율주행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조금씩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 재편에 따라 기존 산업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이로 인해 일방적 해고 등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IT 발달로 콘택트 산업의 일자리가 언택트 산업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송현석 = 현재 존속하고 있는 많은 수의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산업 전반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로 고용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일자리 소멸 대비 취약계층 보호 비대면 증가 노사관계 변화할 것 사회보험 무임승차 반발 해법을

분담이 실현돼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 등 지원이 필요하다.

정흥준 = 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은 산업 재편을 가져오고 이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주목할 것은 산업재편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력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양성할 것인가인데, 이는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인력 구조조정 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교육과 일자리 매칭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김소영 = 콘택트 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언택트 산업이나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직업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직업 정보 제공, 다양한 노동자와 다양한 기업 간 연결을 원활화하

는 정책도 필요하다.

- 언택트 시대엔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활성화로 기존 노조가 위축되거나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 같은데

정흥준 = 언택트 시대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업이 지금보다 높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일하기보다 파편화된 형태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관계도 근로계약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도급계약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노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조는 붕괴되지 않고 지금처럼 임금인상을 협상하는 노사관계에서 보편적 보호에 대해 교섭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송현석 = 노사관계가 고용에서 비롯된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대면 접촉의 빈도가 줄어들게 돼 노사 간 갈등 발생 수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 방식 역시 언택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IT 플랫폼 종사자 등 언택트 관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법·제도적 정비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흥준 = 언택트 산업이 본격화할수록 불안정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당연히 노동 분야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당장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이들 스스로 사용자와 교섭해 부당한 계약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 제공이 필요하다.

송현석 = 이들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래 사회보험 기금 적립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입 대상으로 포섭되면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정부가 고심해야 한다. 글/서병근 기자 sbg1219@ 사진/고이관 기자 photoeran@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남**
www.nanam.net nanam



한국판 뉴딜·비대면 산업... '포스트 코로나' 전략 세운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디지털 뉴딜 등 신성장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등 핵심과제 추진 아동돌봄 강화 방안도 연내 수립

정부가 하반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건다. 세계가 코로나19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내외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

부의 몸부림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9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한다.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 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등을 위해 7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AI·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고도화 전략을 수립한다.

세계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 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을 위해 7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정책도 수립한다. 원격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제도 구축 중장기 계획을 7월에,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방안을 8월에 마련한다. 12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과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12월 수립해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우리나라 방역 강화의 기회로 삼는 전략도 세운다. 감염병 컨트

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8월 설치하며,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12월 수립한다.

특히 이번 위기를 K-방역·바이오 육성의 기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12월 K-방역 글로벌 확산 전략을 마련하며 백신 개발, 상황 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 연구소도 내년 5월 신설한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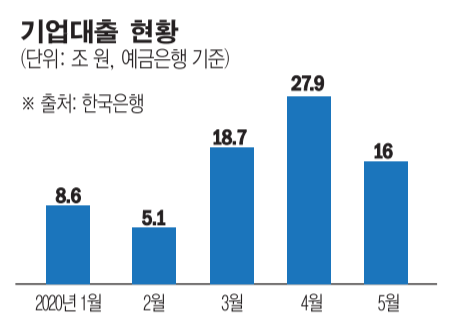


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대출 3~4월에만 46.6조 급증

지난 한 해 증가액 넘어서
정부, 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올해 은행권의 전체 기업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기업대출은 올해 5월까지 모두 76조2000억 원 증가했다. 4월 기업대출 증가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이 집중된 3~4월 기업대출 증가액은 46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한 해 증가액(44조9000억 원)을 넘어섰다. 관련해 정부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증권사 영업순자산비율(NCR) 등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의 정상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6월 26일 기준)은 목표 금액(68조 원)의 3분의 2 수

준(44조 원)을 집행해 현장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7조 원)과 중소기업(17조 원)에 대한 자금 집행률은 각각 70%, 57%였다.

홍 부총리는 "주식, 채권시장 등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금융안정 패키지자금 전액을 조성·투입하지 않고도 시장 안정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10조7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현재 1조2000억 원이 조성됐다.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 원 규모)의 조성 규모는 3조 원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이 지원(4000억 원)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등으로 신청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경제 주체들의 피담 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접목·작용돼 최소한 올해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주어진다.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플라스틱·고무 등도 뿌리산업... 소부장 경쟁력 제고

3D 프린팅·로봇도 뿌리산업으로 ▶1면서 계속

뿌리기업 대출 규모 확대 방침 외국인 고용추천 발급 요건 완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발급했다면 영세업체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뿌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에선 3년간 8000여명의 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을 위해선 공동폐수시설구축을 확대한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밀크런(Milk Run)'도 도입한다. 밀크런은 업체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유 회사가 축산 농가를 돌면서 우유를 거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를 위해 뿌리 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 품목과 수입국, 제3자 물류 기관 등 사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밀크런 추진 TF'도 꾸려 1-2개 품목을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베트남 등 신흥방 국가와 밀크런 조달 체계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뿌리산업의 주요 경쟁요소인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첨단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소부장의 대응 역량 확대에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물류 혁신 R&D에 2027년까지 1461억 투자

정부가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총 1461억 원을 투입해 회수 가능한 택배 용기, 화물인수증 전자인수증 전환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 원(국고 1095억 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기술 분야와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기술 분야 등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증가하는 물동량에 비해 도심 내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업체 간 공동으로 화물을 분류·하역·적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송효율 증대

를 위한 공동배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신도시 내 공동우물 설치하거나 기성 시가지 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지하 공간을 활용한 첨단 도시 물류기술도 개발한다. 또 신선식품의 안전배송 및 포장 폐기물 저감을 위해 회수 가능한 택배 용기 및 포장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경우 화물차 감소를 위해 전기 트럭·이륜차를 고도화하고 배터리 스테이션 등의 보급도 추진한다. 주거지 인근 배송효율 증대를 위해 로봇 기반 말단배송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 고밀도 택배 보관함의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종이 형태의 화물인수증을 전자인수증으로 전환하는 등 물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한편, 공공·민간에

서 각자 관리하는 물류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 화물의 변질·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화물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과 창고 등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 자원관리 시스템도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물처리 효율화를 통한 배송비용 10% 절감, 화물차 대기 오염·폐기물 저감을 통한 생활물류 환경오염 15% 감소, 물류 디지털화를 통한 IT 활용률 20%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성수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이 활발한 물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물류 기술 혁신 기반을 조기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특고 긴급지원금 신청 100만 명 돌파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150만원 지급... 114만 명 웃돌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수가 신청 개시 후 한 달 새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은 이달 1일까지 108만62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지급 인원 114만 명의 95%에 달하는 수치다. 신청 접수 마감일이 이달 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수가 상당한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막막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신청자 수가 지급 인원 114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의 소득·매출이 줄어든 학습지교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한 자는 1차로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 2차로 50만 원(이달 중)을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달 1일부터 온라인(covid19.ei.go.kr)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같은 달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심사 및 확인절차도 도입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잠시^詩

혈액 수급이 부족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의 헌혈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용한 응원

시청 앞 광장을
하나 된 열정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

그 뜨거운 피가 이제는
투명한 고무관을 타고
간절한 이들에게
행복을 채워주고 있다

그 소리 없는 응원은
들리지 않지만
그때의 함성만큼이나
뜨겁게 울려 퍼질 것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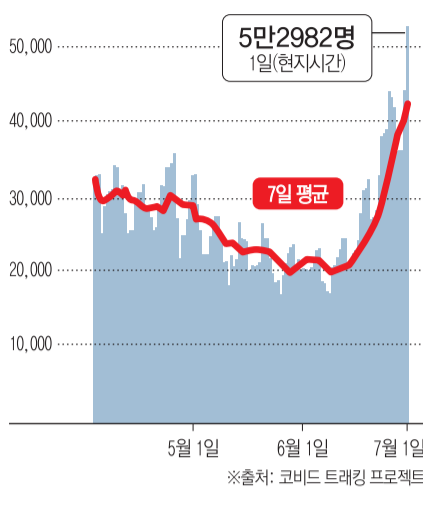


확진자 쏟아지는 美, 독립기념일 ‘퍼펙트스톰’ 불안감

〈7월4일〉

일일 신규 확진자 5만명 첫 돌파
애플 매장폐쇄 등 기업영업 차질
오늘부터 연휴... 재확산 공포 ↑
WHO “봉쇄 재개해야 할 수도”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이 넘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주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날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어 급증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립기념일 대체휴일인 3일부터 연휴가 시작돼 코로나19 감염자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퍼펙트스톰’에 휘말릴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5만298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달 26일보다 8600명 이상 많은 것이다. 6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105%에 달했다.

미국에서 초기에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는 감염이 억제된 듯했으나 5월부터 경제활동을 본격 재개하면서 다시 악몽에 빠지게 됐다.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97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감염자는 23만3000명에 육박했다.

텍사스주도 807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날 세웠던 사상 최고 기록을 1100명 이상 웃돌았다. 증가 폭은 5월 중순 이후 가장 컸다.

애리조나주도 신규 확진자 수가 4878명으로 일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사망자

도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기업들도 최악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지나갔다는 낙관론이 후퇴하면서 영업 재개 계획을 늦추거나 중단해야 하는 처지다. 애플은 이날 “2일부터 미국 7개 주에서 30개 애플스토어를 추가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문을 닫게 된 애플스토어는 총 77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 전체 애플스토어 271곳의 약 30%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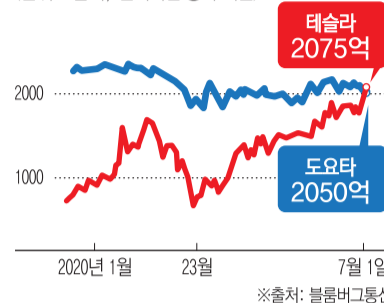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도 이날 “미국 매장 재개장 계획을 21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맥도날드는 미국 내 1만4000개 매장 중 15%에 불과한 2200곳만이 식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영업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나머지 맥도날드 매장은 드라이브 스루와 배달, 테이크아웃에만 서비스가 국한돼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국가가 경제 봉쇄를 재개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리야 밴 커크호브 WHO 신흥질병·동물원성 감염증 부문 책임자는 “코로나19 억제에 성공했던 일부 국가들이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며 “너무 늦지 않기 위해선 지금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테슬라, 업계 ‘시총 1위’ 등극

머스크 전기차 비전 투자 몰려
10년새 ‘17달러→1120달러’
시총 2075억 달러...도요타 제쳐

테슬라·도요타 시총 추이
(단위 : 달러, 현지시간 증가 기준)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에 등극했다.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지 10년 만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일 대비 3.69% 상승한 1119.63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는 주가가 5% 가까이 오르며 113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같은 날 도요타는 전날보다 1.5% 떨어진 6656엔(약 7만4350원)으로 마감했다. 이로써 테슬라의 시총은 2075억 달러(약 250조 원)를 돌파하며 도요타의 시총(2050억 달러)을 넘어섰다.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건 2010년 6월 29일. 당시 공모가는 17달러에 불과했지만 10년 새 주가는 67배로 뛰었다. 작년 말 시점에 도요타와의 시총 차이는 약 1600억 달러였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앞지른 것이다. 보급형 전기차 ‘모델3’ 출하 증가와 중국 상하이 공장의 수익성 개선, 올해 3월 출고를 시작한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모델Y’의 판매 호조가 이처럼 단기간에 극적인 반전을 이룬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시총에서는 도요타를 앞질렀어도 생산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뒤처진다. 1분기 테슬라는 총 10만 3000대를 생산했다. 같은 기간 도요타의 생산 대수는 240만 대로 테슬라의 20배가 넘는다.

부채를 포함한 시총만 봐도 도요타가 앞서 있다. 팩트셋에 따르면 부채

를 포함한 시총은 도요타가 2900억 달러로 테슬라의 2520억 달러를 상회한다.

이는 주가만으로 테슬라와 도요타의 우열을 가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댄 레비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주요 구매자 변화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레비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퀀트와 모멘텀을 중시하는 투자자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매매 앱 ‘로빈후드’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작년 말 12만 명에서 1일 시점에는 32만6000명으로 늘었다. 6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결국 현재 테슬라 주가를 떠받치는 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비전을 믿는 개인 추종자들인 셈이다.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 33명의 목표주가 평균치는 740달러로, 1일 종가는 이미 이를 50% 이상 웃돈다. 테슬라 목표주가를 300달러로 제시한 미국 투자은행 카우엔의 제프리 오스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경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거운데 투자치는 많지 않아 테슬라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군화에 밟히는 홍콩의 미래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이자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 홍콩 도심에서 무장한 경찰들이 ‘집회나 행진은 법규 위반이다. 틀어지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적힌 경고문을 높이 치켜들고 행군하고 있다. 이날 홍콩 도심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37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가장 어린 체포자는 ‘홍콩 독립’ 깃발을 흔든 15세 소녀였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탈출 돕겠다” 빗장 여는 나라들

영국 ‘이민법 개정’·대만 ‘망명 사무소’·미국 ‘난민 법안 발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의 중국화를 우려한 현지인들의 대탈출이 예상된다.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런 홍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 주민에 시민권을 주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중국이 끝내 홍콩보안법을 시행하자 예고대로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 시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홍콩보안법 제정과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5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

된 이후에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권을 유지한다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다.

이번 영국 이민법 개정기에 따라 홍콩 시민 약 300만 명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1997년 발행한 영국 해외시민(BNO) 여권을 갖고 있는 홍콩 주민 35만 명과 신청 자격이 있는 주민 260만 명이 대상이다. 이는 홍콩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BNO 여권 소지자는 현재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간 영국에서 거주 및 노동할 수 있고, 영주권을 얻은 후 시민권을 획득하는 식이다.

홍콩과 동병상련 처지인 대만은 홍콩인의 이주를 돕는 기구를 설립해 홍콩인의 망명에 본격 대비하고 나섰다. 반중 성향

의 차이잉원 총통은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홍콩인에게 가장 굳건한 도움을 주겠다”면서 “7월 1일부터 홍콩인의 이주를 돕는 ‘대만홍콩서비스 교류판공실’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곳은 정치적 이유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홍콩 민주 진영 인사와 시위 참여자의 대만 이주를 돕는 게 주목적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홍콩 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공화·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홍콩 피난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홍콩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 치하의 한 도시일 뿐”이라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미·중 치고받기에... 또 샌드백 된 애플

미·중 규제 강화... 모바일 게임 업데이트 중단 매출 타격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애플이 또 된서리를 맞게 됐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중국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 수천 개의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중국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애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에게 중국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았다는 인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앱인차이나에 따르면 중국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6만여 개로,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이 허가한 게임은 4만3000개 정도다. 지난해 허가받은 게임은 1570개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수개월이 걸리는 중국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기 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개발자들은 물론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화웨이테크놀로지도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감시를 받았지만, 애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았다. 그동안 애플이 어떻게 규제를 우회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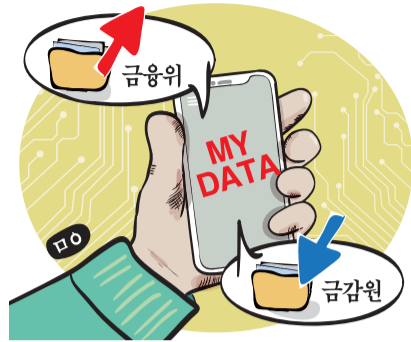
하지만 애플에 관대했던 중국이 최근 미국과 갈등이 심화하자 중국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애플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컨설팅회사 앱인차이나의 토드 쿤스 마케팅 매니저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보면 중국 정부의 개입이 강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통제 강화로 애플의 손실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 모바일 게임 매출의 53%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은 애플 게임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애플이 중국 앱스토어를 통해 올린 매출은 164억 달러(약 19조7000억 원)로 미국의 154억 달러를 앞섰다.

앱인차이나는 애플이 이번 조치로 8억 7900만 달러 규모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금융 사업 금융당국 ‘잇박자’ “관리·감독부 축소” 금감원

금감원, 신용정보실 팀으로 격하
저축은행국서 감독·검사 맡아
고객 정보 관리 공백 불보듯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놓고 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마이데이터 담당실을 축소시켰다. 마이데이터 관련 감독과 검사업무 모두 저축은행국 산하에 배치됐기 때문에 일선에서 혼선이 예고된다. 고객 정보가 개방되는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관리 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인사에서 신용정보실을 신용정보팀으로 격하시키고 저축은행감독국 산하로 배치했다. 신용정보실에 있던 인력은 뿔뿔이 흩어졌고, 팀에는 5명이 남았다. 추후 마이데이터 검사 업무도 저축은행검사국 4팀에서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개최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도 저축은행감독국에

마이데이터 사업
은행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흩어진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 기존 금융회사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 119개 업체가 사업 진출을 희망했을 정도로 시장의 기대는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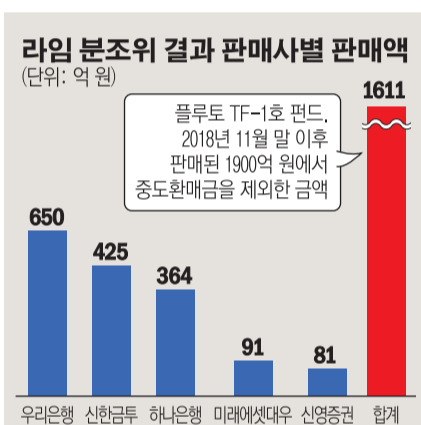
서 발표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평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전체 금융산업이 집중하고 있는데, 저축은행감독국이 발표해 의아하다는 말이 나왔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신용정보실이 해체되면서 업무분담에 대한 혼선

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팀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업무를 관할하는 곳이다. 신용평가사, 채권추심회사와 함께 신정보법에 포함되는 마이데이터, 데이터거래소도 신용정보팀이 맡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팀으로 격하됐다”며 “금융위에 비해 금감원 내부의 관심이 덜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실은 예전부터 신용정보국으로 통합할 계획이었는데 부활했다 다시 없어지기도 했다”며 “다만 신용정보법이 개정됐으니 고객 정보 관리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따라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금융이력이 없는 소비자 대상 휴대전화 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납부 내역을 신용도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부·취업준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도 신용도를 부여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데이터의 개방으로 소비자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올 수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전액 배상 결정에... 라임 판매사, 소송전 가나

분쟁조정 반환금 총 1600억
은행 등 이사회서 수용여부 판단



금감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자 은행 등 판매사들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전액 보상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이 16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배임’ 이슈를 앞세워 수용대신 소송전을 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과 관련해 2일 판매사들은 “분쟁조정결정문 접수 후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투자원금 100% 배상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 4곳으로 총 161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사회 등을 열어 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결정문이 전달되기까지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일 전에는 은행 측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정문 접

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는 당행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내로 투자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소비자보호 이슈가 금융 시장에

서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다만, 판매사에 전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처음인 만큼 소송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 등 판매사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를 판매한 운용사가 잘못이지 판매한 판매사가 책임을 무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배임 이슈’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은행들은 조정문을 받으면 20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때문에 이달 안에 이사회 등을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한 차례 정도 수용결정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가 수용 결정 연장을 요청하면 사유를 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한 추가 분쟁조정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토대로 자율 조정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제시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모펀드는 2019년 12월말 기준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4개며, 173개 자펀드 1조6679억 원 규모다.

김범근 기자 nova@



박재식(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일 임직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제공 저축은행중앙회

6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

“대한항공에 1兆 추가 지원 가능”

“아시아항공, 아직 M&A 진행중
기금 지원여부 상황 지켜볼 것”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한항공에 1조 원의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6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항공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안기금 심의회는 대한항공에 약 1조 원 수준의 하반기 필요자금에 대해 지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의회는 아직 기업의 구체적인 자금 수요와 필요시기에 대해선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 해당 기업의 자금 신청 시 세부 지원조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대한항공의 주주권은행(산은)을 거쳐 자금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항공의 경우 현재 M&A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기금의 지원 여부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심의회는 결정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현재까지 정책 금융을 통해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중이고 추가적인 자금은 회사들의 M&A, 증자 등 자구노력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35조원+@)’을 통한 지원이 우선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LCC의 추가적인 자금상황 등을 지켜보며 필요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회는 다음 주 기금운용 심의회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기구(SPV)’에 대한 출자방안을 심의하고 7월 중 조속히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 심의회는 코로나 영향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 여부를 논의했다.

기안기금 심의회 측은 “기금은 산은법상 설립목적과 운용취지를 감안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예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체 증자, 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 심의회는 다음 주 중 자금지원 신청공고를 거쳐 자금 집행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초기 신용카드에 대한 오마주... 롯데카드 ‘새 명함’ 공개

롯데카드사는 회사의 ‘얼굴’ 격인 명함을 새롭게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새 명함은 ‘초창기 신용카드’를 모티브로 했다. 1950년대 신용카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철학과 정신을 담아 임직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사 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카드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뚜껑은 종이에 인쇄를 해 사용했던 초기 신용카드의 디자인을 ‘오마주(Hommage, 존경과 경의의 표시로 인용하는 것)’해 명함에 적용했다. 타자기로 입력한 듯한 5가지 종류의 서체를 사용하고 휴대폰 번호의 경우 그 당시의 카드 번호 기재 방식을 차용했다. 또 신용카드가 지닌 여러 디자



앞면

인적 요소와 의미를 명함 곳곳에 담았다. 명함 사이즈와 모서리의 라운드값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기존의 명함에서 중요시했던 정보 전달이나 가독성보다는, 회사의 경영 철학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



뒷면

향을 담는 데 주력했다”며 “신용카드 회사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는 롯데카드의 의지가 담긴 명함”이라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현대글로비스, 2024년까지 폭스바겐그룹 차 운송 맡아

현대글로비스가 폭스바겐그룹 완성차를 해상운송하는 장기계약을 따냈다. 현대차 그룹 외 물량 중 최대 규모다.

현대글로비스는 2일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폭스바겐그룹 내 승용 브랜드 완성차를 2024년까지 해상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 수출물량을 전량 확보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5182억원이다. 3년 후 2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계약 상대방은 폭스바겐 그룹 완성차 브랜드 12개의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 '폭스바겐 콘제르노로지스틱'이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월 10회에 걸쳐 폭스바겐그룹 승용차를 독일 브레머하펜항과 영국 사우샘프턴항에서 중국 상하이 등으로 운송한다.

현대글로비스는 2008년 자동차운반선

현대차그룹 외 최대 물량... 유럽→중국 5182억 계약 비계열사 매출 2016년 40%서 2019년 53%로 확대

사업에 진출한 이래 현대차그룹이 아닌 비계열 완성차 업체와 맺은 계약 중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그동안 한국에서 유럽으로 완성차를 수출한 뒤 돌아오는 선박에 실을 화물 유지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으로 극동→미주→유럽→극동으로 연결되는 세계 완성차 핵심항로 물동량을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빈 배로 운항하는 구간을 최소화하게 됐다.

이는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신규 화주와 계약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통상 운송계약이 2년

안팎 단기간에 5년 장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완성차 해상운송에서 비계열사 매출 비중이 2016년 40%에서 2018년 44%로 늘었고 작년에 53%로 확대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작년 완성차 해상운송 사업 매출이 2조 510억원이었으니 비계열 기업에서 받은 운임만 1조원에 달한 셈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일본, 유럽계가 과점하는 시장에서 유일한 한국계 국적선사다.

17개 완성차 제조사와 물류계약을 맺고 있으며 덤프트럭 등 중장비, 중고차 수출



현대글로비스가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해상운송 장기계약에 성공했다. 독일 브레머하펜항에 기항 중인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운반선 '글로벌스 크라운' 호의 모습. 사진제공 현대글로비스

입 물량도 운송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사업 확대를 위해 작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운반선을 90여척으로 늘렸고 차량을 7300대까지 싣는 배를 일찍 확보해서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3월 스웨덴 선사 스테나 레데리와 유럽에 합작사인 스테나 글로비스를 세운 것이 이번 계약에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식탁 아래 와인셀러가 '썩' LG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LG전자가 2일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인 아일랜드 와인셀러와 서랍형 냉장고를 국내 출시했다. 신제품은 아일랜드 식탁이나 조리대 아래에 빌트인으로 설치하는 언더카운터 타입이다.

LG전자는 오픈형 주방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홈코노미 라이프 트렌드에 주목했다.

아일랜드 와인셀러는 위쪽과 아래쪽 공간의 온도를 서로 다르게 유지할 수 있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분해 최대 41병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와인 맛, 풍미, 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습도,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한다. 와인셀러 내부 선반의 고급스러운 너도밤나무 원목 소재와 외관의 티트 클래스는 인테리어 가치를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고객이 다가가면 와인셀러가 이를 감지해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글라스 도어 왼쪽 상단에 손을 대면 문이 10도 가량 자동으로 열린다. 이어서 별다른 동작이 없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이 꺼진다.

아일랜드 서랍형 냉장고는 위아래 서랍 모두 식품을 냉동하는 영하 23도에서 살짝 얼대과일을 보관하기 좋은 영상 10도까지 필요에 따라 19단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총 89리터 용량의 냉장고 내부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해 정온 유지 및 위생 관리에 뛰어나고 내구성도 우수하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안전하게 서랍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도어를 끝까지 닫아 쥐 냉기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 소비효율은 1등급이다.

고객들은 전용 앱과 연동해 스마트폰으로 두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온도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아일랜드 와인셀러의 가격은 300만 원이며 서랍형 냉장고는 스테인리스 패널 적용 시 350만 원이다.

송영록 기자 syr@

SK하이닉스, 기본급 100% PI 지급

코로나에도 목표 생산량 달성

SK하이닉스가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생산성 격려금(PI)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있었지만,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2020년 상반기 기본 PI를 기본급 100%로 7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PI(Productivity Incentive)는 생산성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다. SK하이닉스는 2010년 이후 10년간 빠짐없이 상·하반기에 기본급 100%(연간 200%)에 해당하는 PI를 지급해왔다.

2013년에만 중국 우시 공장 화재 여파로 연간 100%를 지급한 바 있다. 6000만 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1년차 TL(과장)의 경우 월 기본급은 300만 원 수준이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불황과 공장 폐쇄 등 악영향이 많았지만, 결국 생산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에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매출액 7조1989억 원, 영업이익 8003억 원, 순이익 6491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버용 제품 판매 증가와 수출 향상, 원가 절감에 힘입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각각 4%, 239% 증가했다. 송영록 기자 syr@



'갤럭시플립' 커스텀 스킨 1회 무상 서비스 삼성전자는 '갤럭시플립'에 다양한 색상, 패턴, 디자인의 총 11가지 커스텀 스킨(Custom Skin) 부차 서비스를 진행한다. 갤럭시플립 신규 구매 고객뿐 아니라 기존 구매 고객까지 9일부터 전국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커스텀 스킨 1회 무상 부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 첫발

배터리 핵심소재 공장 착공

포스코케미칼은 2일 포항시 동해면에서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명환 LG화학 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 포스코 오규석 신성장부부장 등 고객사와 사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포항시 블루베리국가산업단지 내 7만8535㎡ 부지에 2177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연산 1만6000톤(t) 규모의 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

정이다. 음극재 1만6000t은 60킬로와트시(kWh) 기준 전기차 약 42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전기차 시대의 본격 도래를 앞두고 국산화가 필요했던 소재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고 양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음극재는 배터리 핵심소재 중 하나다. 원료에 따라 인조흑연계와 천연흑연계로 나뉜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고온에서 결정성을 높여 제조해 천연계 제품보다 소재 구조가 균일하고 안정적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장수명과 급속충전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현대차, 포터 기반 캠핑카 포레스트 출시 현대자동차는 소형 트럭 포터II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 '포레스트'를 6일 출시한다. 포레스트는 최대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격은 2인승 모델인 엔트리가 4899만 원, 4인승 모델인 스탠더드와 디럭스는 각각 6430만 원과 7706만 원이다. 사진제공 현대차

모비스, 美 테크펀드에 2000만弗 출자

글로벌 미래차 우군 선제 확보 독자·공동개발 이어 간접투자

현대모비스가 미국 '요소 기술' 스타트업업을 포함한 글로벌 벤처펀드에 2000만 달러(약 250억 원)를 출자한다. '3대 기술 확보 전략'을 공언한 모비스는 이를 시작으로 미래차 핵심기술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한 요소 기술 전문 테크펀드인 'ACVC파트너스'와 'MOTUS벤처스'에 총 2000만 달러를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차 핵심기술과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출자를 통해 △자율주행 △전동화 △커넥티비티로 대표되는 미래차 경쟁에서 글로벌 우군이 선제적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왔다. 경기도 용인에 자

리한 마북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4곳의 해외연구소를 통해 독자 기술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 예컨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레이더 센서를 지난 2018년 독자기술로 개발했다. 이어 상용차용 카메라 시스템, 인캐빈(차량내부) 센싱기술도 자체 기술로 확보해 놓았다.

현대모비스는 독자개발과 선진업체 직접투자에 이어 이번에 VC 펀드 간접투자를 하며 기술확보 전략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간접투자는 기술협력과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보다 VC 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현대모비스는 VC 펀드 출자를 통해 미래차 요소기술을 보유한 해외 스타트업을 중장기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가 출자하는 ACVC파트너스와 MOTUS벤처스가 발굴한 신생기업들은 주로 △차세대 센서 △생체인식 △로보틱스 분야의 북미지역 스타트업이다. 모두가 미래차 시장에서 유망기술로 손꼽히는 분야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제주항공 "열흘 안에 이행조건 완료하라"

제주항공이 "선결 조건 이행건에 문제없다"고 공문을 보내는 이스타항공 측에 "10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지난달 30일 보낸 공문에 대해 전날 이 같은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공문에는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지급 보증건과 선결 조건 이행건등의 내

용이 담겨있으며, 제주항공은 이를 검토한 결과 선결 조건이 사실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열흘이라는 시간을 준 셈이다.

제주항공이 열흘 내에 이스타항공에 해결하라고 한 금액은 800억~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동안 논란이 된 체불 임금 250억 원 외에도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분명, 이기나긴 골목에는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얼어붙은 이 골목에서
당신의 어깨는 한없이 내려앉고
당신의 한숨은 끝없이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믿습니다
이 골목의 고비만 지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끝이 어디라도
신한은행은 당신과 함께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의 힘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
신한은행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이시기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관련 금융지원

- ▶ 피해 중소기업 보유 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 ▶ 피해기업 및 종업원, 코로나 19 확진자 대출의 연체이자 감면
- ▶ 대구, 경북지역 비대면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개인고객)

신한 SOHO 성공지원센터 운영

- ▶ 경영애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 ▶ 사업영위 관련 법률, 세무, 노무 분야 상담
- ▶ 서울 지역 총 3개 운영 중 (중부, 남부, 강남)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 ▶ 신한은행 거래 개인사업자 대상 무료 광고 지원
- ▶ 신한은행 영업점 내 디지털 전광판 / 포스터를 통한 광고 게시
- ▶ 전국 32개 영업점에서 시행 및 연내 확대 예정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상담신청은 신한은행 App '신한SOL'에서 메뉴 → 간편서비스 →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 신한SOHO성공지원센터의 경로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상단 QR 코드로 바로 접속 가능)

※금융지원 대상,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77-8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0-10391-1호 (유효기간 2020.04.10~2021.03.31)

삼성 '소비자 취향 저격' 1000만원대 프리미엄 냉장고

최고 1249만원 '뉴세프컬렉션' 도어·수납존 따라 150개 조합 이탈리아 금속 가공업체와 협업 맞춤 가전 프로젝트 3번째 제품

“새로움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 이후 출생 세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자 했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품 전략팀장 상무는 2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 57에서 열린 '뉴 세프컬렉션' 출시회에서 신제품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했다.

2014년 선보인 세프컬렉션의 신버전인 뉴 세프컬렉션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반영해 맞춤형 가전을 제공하겠다는 사업 방향 '프로젝트 프리즘'의 세 번째 제품이다.

앞서 공개된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와 그랑데 인공지능(AI) 건조기·세탁기는 디자인, 성능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뉴 세프컬렉션은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



삼성전자가 맞춤형 가전을 제공하기 위해 2일 출시한 '프로젝트 프리즘'의 세 번째 제품인 '뉴 세프컬렉션'.

사진제공 삼성전자

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도어패널(5종)과 수납존(5종) 등 편의 기능 구성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조합만 총 150개에 달한다.

특히 뉴 세프컬렉션에 새로 도입된 비스포크 수납존은 195만 건의 소비자 식품 구매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5가지 전문

식품 보관 공간을 제안한다. 냉장실 하단에 있는 비스포크 수납존은 △미트 앤 피쉬 △와인 앤 치즈 △베이컨 △프루트 △가정 간편식에 최적화된 '패밀리 앤 쿡' △건강 보조 식품 보관에 용이한 '헬스 앤 웰빙'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개인 취향에 따라 별도로 액세

서리를 구매해 비스포크 수납존을 변경할 수 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춰 선보인 도어 패널은 유럽 소재 전문 업체와 협업의 결과물이다.

5가지 색상은 △마레 블루 △세라 블랙 △훈드 네이비 △훈드 베이지 △훈드 라이

트 실버 등이다.

이 중 최고급 패넬인 마레 블루는 이탈리아 금속 가공 전문업체인 데카스텔리와 협업해 탄생했다. 이탈리아 베니스 바다에 착안해 역동성과 평온함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뉴 세프컬렉션은 △물통 센서로 물의 양을 측정해 마신 만큼 다시 채워주는 '오토 필 정수기' △음료에 따라 다양한 얼음을 제공하는 '오토 듀얼 아이스메이커' 등 여러 편의 기능도 갖췄다.

이제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삼성전자 뉴스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뉴 세프컬렉션 냉장고는 진화한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비스포크 개념을 외부에서 내부까지 확장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가전을 나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 중심 가전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 세프컬렉션은 내부 사양에 따라 900~930리터 용량으로 선보인다. 전 모델 모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다. 출고가는 사양에 따라 779만~1249만원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켈(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졸업앨범 된 LG전자 뉴욕 전광판 LG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졸업식을 즐길 수 없게 된 졸업생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LG전자 LED 전광판에 올해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 375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평소에 해왔던 상업적인 광고는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LG전자

허세홍 사장 "자원 소모 한계...업사이클링 필수"

GS칼텍스 '친환경 경영' 확대

"기존의 채굴, 사용, 폐기에 의존하는 자원 소모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허세홍(사진) GS칼텍스 사장이 기존 자원을 이용해 소재를 생산하는 방식이 한계에 왔다고 진단하며 자원 효율화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경영 확대 기초를 밝혔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복합수지를 기반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GS칼텍스는 2일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이 전체 복합수지 생산량의 1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복합수지(Compounded Resin)는 자동차 및 가전 부품의 원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며, 국내 정유사 중 GS칼텍스만 생산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을 위해 재활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연간 6만1000톤(t)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9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으며, 자동차 연간 배출가스 기준 환산시 승용차 3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

GS칼텍스는 지난 2010년부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친환경 복합수지 연간 생산량은 2만5000t으로 초기 생산량에



비해 2.5배 이상 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62% 매립, 24%가 소각되고, 나머지 14%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이 2050년에는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물성의 재료를 혼합하여 성능, 품질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허 사장 역시 "폐기물 최소화에 따른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 순환 비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향후 글로벌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연산 30만t의 복합수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준중형 자동차 1대를 제작하는데 복합수지가 약 50kg 가량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준중형 자동차 6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전통시장 ‘동행세일’... 상인도 소비자도 ‘싱글벙글’

전국 633개 전통시장 참여... 매출액 8%·방문객 수 16% 늘어
청년상인 운영 제과점 2곳 “5일간 매출 2000만원 이상 올려”
고객들 ‘맛있다’·‘고맙다’ 리뷰에 “그동안 노력 보상받는 기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반짝’ 지급효과 우려 속에도 전국 63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연일 활성화 기대감 속에 전통시장 동행세일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동행세일에 참여하고 있는 50개 전통시장, 750개 상점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한 결과, 동행세일이 시작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매출액 및 방문객 수가 세일 시작 전 주말(6월 19일~21일)에 비해 각각 8%,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된 지 1주일이 되면서 온라인커머스를 통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원주시 미로예술중앙시장의 청년몰에 입점해있는 자매제과(대표 신수란)와 모코롱(대표 한유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기점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매출 상승은 중기부와 소진공의 지원을 통해 6월 26일부터 ‘11번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청년상인 입

점 기획전’에 참여하면서다.

두 청년상인은 각각 다쿠아즈와 마카롱을 판매했는데, 효과는 동행세일 첫날부터 나타났다.

두 청년상인의 다쿠아즈와 마카롱은 공단의 20%할인쿠폰, 배송비 무료쿠폰 지원과 맞물려 첫날 270건의 주문을 시작으로 동행세일 5일간 각각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신수란 자매제과 대표는 “이번 동행세일을 통해 많은 고객들에게 우리 다쿠아즈의 맛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고객들의 ‘맛있다’ ‘고맙다’라는 리뷰를 볼 때면 그 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특별판매전 외에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서도 대한민국의 동행세일을 통해 매출 반등을 노리고 있다.

특히 경북 포항의 죽도시장, 죽도농산물시장, 죽도어시장 3곳은 ‘오감만족 죽도시장 축제’를 6월26일부터 3일간 진행,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

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한 한 고객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통시장에 와보니 사람사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며 “저렴한 가격에 재미는 덤으로 얻었다”고 말했다.

허창호 죽도농산물시장 상인회장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방역에 가장 신경을 쓰고 고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조속히 안정되어 다시 시골벽적인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동행세일 운영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힌 구범립 대전상인연합회 회장은 “동행세일을 통한페이백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전지역 전통시장들이 함께 손을 잡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조심스레 반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보환 소진공 이사장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633곳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2020 대한민국 동행세일’ 첫 주말을 맞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달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형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팡야M



트릭스터M



프로야구 H3

‘팡야·트릭스터’ 모바일로 돌아온다

엔씨, IP기반 인기 게임 3종
연내 개발 완료 순차적 출시

엔씨소프트의 개발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가 개발 신작 라인업을 공개했다. 과거 인기를 끌었던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인 만큼 다양한 유저들이 게임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엔트리브소프트는 2일 서울 역삼동 더 라움에서 신작 발표회 ‘TRINITY WAVE’를 개최하고 개발 중인 신작 모바일 게임 3종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엔트리브소프트의 자체 IP를 활용한 ‘트릭스터M’과 ‘팡야M’, 그리고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신작 ‘프로야구 H3’를 공개했다.

신작 트릭스터M은 엔트리브소프트의 대표 IP인 ‘트릭스터’를 모바일로 구현한 게임이다. 트릭스터는 2003년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해 10년 이상 서비스를 이어온 장수 게임이다. 2014년 서비스를 종료하긴 했지만 국내와 일본, 대만, 동남아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인기를 끈 흥행작이다. 트릭스터M은 원작의 2D 도트 그래픽이 그대로 적용됐다. 캐릭터간 충돌처리 기술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심리스 월드’를 통해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트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구현 기술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추억



이성구 엔트리브소프트 총괄 프로듀서가 2일 열린 신작 발표회에서 게임을 소개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은 살리면서 깔끔한 게임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신작은 ‘팡야M’이다. 이 게임 역시 PC온라인 게임 ‘팡야’의 IP를 활용한 골프게임이다. 팡야는 글로벌 40여개 국가에서 서비스한 대표작으로, 이를 모바일로 구현해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조작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개한 ‘프로야구 H3’는 엔트리브소프트가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이용자는 감독에 더해 구단주의 역할을 맡아 야구단을 운영한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생동감 있는 경기 리포트와 하이라이트, 뉴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엔트리브소프트는 신작을 통해 매출원을 다양화한다는 전략이다. 엔트리브소프트의 과거 10년 이상의 인기를 이끌었던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되는 만큼 실적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작 3종은 연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릭스터와 팡야는 각각 2014년, 2016년 PC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유저 수 감소로 인한 비중이 높다.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실패한 게임의 IP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팡야 모바일은 지난 2018년 동남아 시장에 출시했지만 서비스가 종료되며 실패 사례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좋은 게임을 유저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동남아 시장 실패를 발판삼아 문제점을 해결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구 프로듀서는 “트릭스터와 팡야는 좋은 게임이었고 원작 팬들도 많아 사람들에게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 모바일로 개발하게 됐다”며 “위낙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스마일게이트 그룹, 경영 협의체로 전환

그룹 내 의사 결정·전문성 강화
신임 의장에 성준호 대표 선임



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민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는 그룹에 새롭게 신설된 CVO(비전제시최고 책임자)를 맡는다. 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그룹 경영 체제를 현 그룹 이사회 체제에서 그룹 IP 경영 협의체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준호(사진)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를 경영 협의체 의장으로 선임한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경영 체제 전환을 통해 그룹 내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빠르게 반영된 전략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준호 신임 스마일게이트 그룹 IP 경영 협의체 의장은 지난 2019년 1월 그룹 컨트를 타워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현재까지 그룹 내 계열사들의 주요 이슈를 조율해 핵심 사업간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내는 등 그룹 CEO로서 그룹 경영에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성준호 대표가 새롭게 그룹 IP 경영 협의체 의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계열사간 협력 극대화를 이끌어 내며 그룹이 ‘존경받는 글로벌 IP명문 기업’으로 한층 빠르게 도약 할 수 있

또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역할은 지속적으로 겸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창의 환경 조성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성준호 신임 의장은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그동안 IP 발굴 및 다각화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장 및 사업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왔다”며 “그룹 IP 경영 협의체 의장으로서 그룹의 전문 경영인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스마일게이트 그룹을 글로벌 최고의 IP 명문 기업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공영쇼핑 ‘공영심의위원회’ 독립 기구 출범

공영쇼핑이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도 심층 강화한다. 진실에 근거한 방송을 해나가기 위해서다.

공영쇼핑은 전담부서 상설 독립기구 ‘공영심의위원회’를 신설,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흑자 원년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체제에서 보다 엄격한 심의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공영심의위원회는 기존 방송 사전심의 중심에서 생방송(라이브), 온라인까지 범

위를 확대해 심의를 맡게 된다. 공영쇼핑의 방송을 포함한 온라인 몰, 모바일앱 등의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엄정한 심의 기준 및 규정 위반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공영 심의 규정을 위반할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박진상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원장, 사업별 본부장들이 위원을 맡고 기존 방송심의팀 8명이 포함된 사무국 등 총 17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다원 기자 leedw@

사업 확장 '노브랜드' 희비 갈린 가성비 버거 내부 갈등 '맘스터치'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로열티 재투자 방식' 가맹사업 진출
해마로푸드 맘스터치, 사모펀드에 매각 후 고용·임금 등 노사 갈등

국내 햄버거 업계에서 후발주자임에도 존재감을 드러내던 맘스터치(해마로푸드 서비스)와 노브랜드 버거(신세계푸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워 경기 악화 속에서도 꾸준히 출점해온 노브랜드 버거는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맘스터치는 지난해 말 사모펀드로 매각된 이후 계속되는 노사 분쟁이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버거 가맹사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8월 론칭한 노브랜드 버거는 식품 제조 및 유통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제 버거 수준의 맛을 추구하면서도 4000~6000원 대 버거 세트를 선보여 가성비 전략을 앞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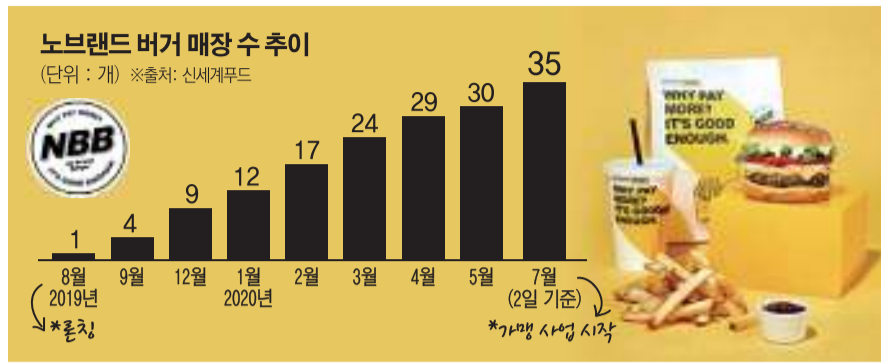
노브랜드 버거는 론칭 후 햄버거 주 소비층인 10~3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에게

뛰어난 맛과 합리적 가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사업 시작 10개월 만에 매장 수 35개를 돌파했다. 업계 1위인 롯데리아의 경우 올해 매장 수(1332개)가 전년보다 10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성장세다.

노브랜드 주요 매장은 하루 1000개가 넘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난달까지 햄버거 누적 판매량이 300만 개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매장당 하루 판매량 1000개'가 좋은 실적의 기준이 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대학가, 주택가 등 다양한 상권에서 직영점을 운영하며 가맹사업 가능성을 테스트했다"며 "이후 맛, 시스템, 인력, 교육,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가맹사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버거 가맹사업을 로열티(상표사용권) 방식으로 운영하며 가맹점과의 상생에 나선다. 로열티는



매출액의 8%로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동 발전을 위해 재투자된다.

신세계푸드는 매장 수나 사업 확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을 오픈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반면 햄버거 업계 후발주자 1세대인 맘스터치 내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 회사는 서울쌍문동 골목길에서 시작해 가성비 전략으로 10여 년 만에 매장 수 1273개(6월 기준)로 업계 2위에 올라 '햄버거업계 이디야'로 불렸다.

다만 지난해 말 정현식 회장이 사모펀드

케이엘엔파트너스에 지분을 매각한 이후 노사간 고용 보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다. 이후 최근에는 임금 협상이 결렬되며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동조합은 지난달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달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최초 교섭 요구로 시작된 단체 교섭이 8차 교섭에 이르도록 타결되지 않았고, 더 이상 자율적 교섭에 의한 타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사측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최근 일방적인 교섭 결렬 선언하고, 쟁의 조정을 강행함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며 "일방통행식 쟁의조정 신청은 소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생계형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 상위권 대우를 받는 노조의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 등은 노사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노사 갈등이 공격적인 투자를 막아 성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모펀드가 회사의 주인이 되면서 해마로푸드서비스 내부에선 이미 사업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기조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달 30일 성장 궤도에 오르지 못한 피자전문점 분타 직영점 2곳인 중앙대점·건대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올해 이사회에선 적자가 계속되던 미국·베트남 법인의 청산을 의결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2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리미티드 딜(Limited Deal)'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행사 첫 상품으로 계란·양파·멸치 등 12가지 종류를 엄선해 판매를 시작하고, 주말인 4~5일엔 '수박 리미티드 딜'을 진행한다. 뉴시스

마트 3사 "마진 없이 더 싸게" 이번 주말 동행세일 '승부수'

"세일 기간 유일한 일요일 장사"... 추가 할인·한정 특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세 번의 주말 중 두 번의 주말(6월 28일, 7월 12일)의 무휴업을 시행하는 대형마트가 유일하게 문을 여는 이번 주말에 대대적인 할인전을 펼친다.

대형마트 3사는 동행세일 첫 주말 일요일인 지난달 28일 418개 점포 중 78%에 해당하는 328개 점포가 문을 닫은 만큼 대형마트의 동행세일 매출 상승 효과가 다른 유통채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백화점, 이커머스, 아웃렛 등이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데 비해 대형마트는 한 자릿수 매출 신장률에 그쳤다.

이에 대형마트는 동행세일 기간 유일하게 일요일 장사에 나서는 이번 주말 노마진 특가, 한정 상품 초저가 등 고객 유인책을 다양하게 제시해 매출 끌어올리기에 돌입한다.

롯데마트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는 '통큰절'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행세일 1·2탄의 할인율을 업그레이드한 노마진 수준의 행사다.

우선 동행세일 2탄에 3300원에 선보인 '러시아 대게(100g/러시아산)'를 통큰절

기간 10% 추가 할인한 2980원에 판매한다. 1등급 한우도 준비해 '1등급 한우 불고기/국거리(각100g/냉장)'를 얼포인트 회원 대상 기존 판매가에서 40% 할인된 342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매일 한정 물량을 선정해 초저가에 판매하는 '리미티드 딜(Limited Deal)'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2일부터 계란, 양파, 멸치 등 12가지 상품을 '리미티드 딜' 첫 상품으로 엄선해 판매를 시작하고 주말인 4~5일에는 수박 리미티드 딜을 진행한다. 중량(6kg~10kg 이상), 품종(씨없는 수박, 당도선별 수박 등)에 상관없이 모두 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홈플러스도 신선·가공식품 할인 판매를 이어간다. 대표 상품으로는 △국내산 손질 오징어 5마리 9990원 △유명산지(고창/음성/진천) 정보 수박 행사 카드 기준 1만 7990원 △호주산 곡물산심(100g) 3590원(마이홈플러스멤버십 할인)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동행세일 기간 중 유일하게 문을 여는 이번 주말 더 많은 고객들이 대형마트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인,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NYT가 꼽은 라면의 왕 '신라면블랙'

셰프·작가 등 시식 최고 점수 상위 11개 제품 중 4개 '농심'

농심은 미국 3대 일간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농심의 '신라면블랙'을 꼽았다고 2일 밝혔다.

뉴욕타임스 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Wirecutter)'에 실린 'The best instant noodles' 기사에서 신라면블랙은 기자와 전문가들이 선정한 '전 세계 BEST 11 라면' 중 1위를 차지했다.

신라면블랙은 특유의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 뉴욕타임스는 신라면블랙을 '한국 1등 신라면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소개했다. 설렁탕 후점양념이 들어간 진한 소고기 육수와 적절한 매콤함, 슬라이스 마늘과 큼직한 버섯 조각, 쫄깃한 면발이 주는 식감의 조화를 매력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뉴욕타임스 와이어커터



팀이 셰프, 작가, 평론가 등 7명의 음식 전문가로부터 각각 라면을 추천받고, 최종 선정된 11개 라면을 시식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EST 11 라면에는 한국라면 4개, 일본라면 6개, 싱가포르라면 1개가 포함됐다.

기사를 쓴 안나 펄링 기사는 "전 세계 수천 개의 라면 중 전문가들이 선정한 라면을 타입별로 그룹을 나눠 며칠에 걸쳐 시식했다"며 "모든 제품은 포장지에 적힌 표준 조리법대로 만들었고, 맛과 품질, 광고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라면블랙에 이어 농심 짜짜구리(짜짜게타+너구리, 3위), 신라면건면(

6위), 신라면사발(8위)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11개 제품 중 농심 브랜드 4개가 한국 제품으로 순위권에 오르며 한국 라면의 자존심을 세웠다.

'짜짜구리'는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으로 유명해진 라면으로 짜장의 단맛과 매콤한 해물맛이 균형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라면건면'은 열풍 건조된 건면이 쫄깃하고 건강한 맛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파는 사발면 형태(Bowl)의 '신라면사발'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라면의 용기면으로 전 세계인 지 조리 간편하고 얇은 면발과 매콤한 국물이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전 세계 라면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농심 브랜드의 좋은 평가는 곧 한국 라면의 위상과도 연결된다"며 "경쟁 우위의 맛과 품질, 생산 시스템을 자랑하는 농심의 해외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를 높여겠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벼랑끝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못 줘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내리고 차등화" 요구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삭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공존을 위해 △최저임금 2.87%(전년도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을 받고, 편의점 20%는 적자 점포가 되는 등 '알바보다 못 버는 편의점



점주'는 이미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CU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991만 원이다. 편의점 수익률은 총 매출의 25~26% 수준으로, 영업이익 중 30%를 가맹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한다. 점주는 배분 받은 70% 안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점포 유지비를 지출해야 한다.

편의점협의회에 따르면 임대료는 수도권 기준으로 평균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또한 협의회 측은 한 점포 당 하루에 2~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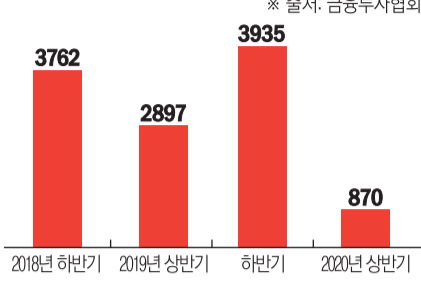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주당 70~8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려왔다"며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편의점주들은 생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최종영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인근과 호텔 내부 점포 등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78% 준 주식형 공모펀드, 稅 개편에 앞날도 '깜깜'

‘동학개미’ 직접투자 열풍에 소외
올 상반기 신규 설정 규모 870억
과세 적용엔 시장 더 줄어들 듯

주식형 공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설정 원본 기준) ※ 출처: 금융투자협회



계됐다. 작년 하반기(3935억 원)보다 77.9% 감소한 규모다.

이는 동학개미운동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주식 직접투자 열풍과 괴리된 양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사재기에 나섰다. 주식투자 대기자 급인 투자자예약금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

말 기준 27조 원대에서 현재 5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간접투자 시장에는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같은 저점 매수 시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를 바라보는 온도 차가 분명했다.

합리적으로 보면 저점 시점에 주식 투자와 펀드 투자가 함께 늘어나야 맞지만, 펀드 투자는 한참 활황일 때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상품이 출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 ‘필승 코리아펀드’, 국내 언택트(Untact·비대면) 기업 주식을 담은 ‘미래에셋코어테크’ 등 시장의 주목을 확실히 끌만한 한 상품이 아니면 내놓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내 상장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과 펀드 모두 이익이 났을 경우 20% (3억 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펀드의 경우 2022년부터, 주식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주식으로 번 돈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고, 펀드로 번 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똑같이 2000만 원을 벌어도 주식 투자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4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운용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세제 개편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시장을 활

성화하겠다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걸 보면 그저 답답하다”며 “개인의 직접 투자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투자하는 공모펀드 시장을 키우려 했던 것인데 이번 정책은 반대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 정부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던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와 동등한 위치가 된다”며 “해외주식에 주력하는 운용사와 국내주식에 주력하는 운용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운용업계가 합심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금융당국, 1만개 사모펀드 전수조사 착수

라임 등 소비자 피해 잇따라
P2P·불법사금융도 집중 점검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P2P대출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 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높일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각 분야별로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얻어 구성된다. 매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1만 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233개) 현장검사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종로 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은 점검 중에도 즉시 보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검사조직을 구성하고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게 된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 구성을 완료하고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검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

행할 방침이다.

P2P업체(약 240개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내달 하순인 P2P법 시행 전후로 집중 점검한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분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양형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은 경찰, 특사경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에 나서고 탈세업자의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SK바이오팜 ‘대박’에 7월 IPO 시장 ‘후끈’

증시 반등·유동성 확대 기대감
위더스제약 등 14곳 상장 예고

하반기 시작과 함께 올해 IPO(기업공개) 대어 중 하나인 SK바이오팜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상장하면서 이로 인해 이달 IPO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총 14개사(스팩합병, 코넥스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3일 위더스제약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오는 6일 신도기연, 13일에는 소마젠이 각각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이외에 에이프로, 티에스아이, 솔트룩스, 제놀루션, 엠투아이코퍼레이션, 이엔드디, 와이팜 등이 이달 중 상장을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신규 상장한 기업이 12개 사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달에 상장에 나서는 기업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진정되면서 증시가 반등했고, 이에 따라 4월부터 상장 청구 건 수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청구 기업 건수는 3월에 4개에 불과했지만 4월에 20개, 5월 13개, 6월 16개를 기록했다. 7월에는 심사승인 받은 26개 기업 중 15곳이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4월~6월 심사 청구 접수된 건이 49건

(스팩합병/이전시장 포함)에 달한다. 심사승인 청구에 대한 검토는 통상 약 2개월(45영업일 이내) 소요되는데, 4월~6월에 심사청구 접수가 몰리면서 2개월 후인 7월~9월에 다수의 심사 승인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SK바이오팜 상장이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회사의 상장으로 공모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상장예정인 기업들의 공모 시점이 연내로 집중될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SK바이오팜 청약 증거금 31조 원 중 환불된 약 30조 원이 변수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자금이 주식 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의 청약 증거금 환불일이었던 지난달 26일 청약을 진행한 신도기연과 위더스제약이 이로 인한 반사효과를 누렸다. 신도기연과 위더스제약의 일 반청약 증거금은 각 1조9864억 원, 2조7500억 원에 달했고 일반 경쟁률도 각각 95대 1, 108대 1을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상장을 앞둔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올해 하반기에 상장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모절차 돌입 시점을 앞당기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는 시각도 많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오너 2세 지분 40%... 4년간 내부거래로 급성장

일감돌보기

케이씨인더스트리얼

케이씨그룹의 계열사케이씨인더스트리얼이 최근 4년간 평균 30%의 매출을 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씨그룹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와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 그룹이다. 작년 말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은 7768억 원으로 순이익은 1022억 원, 총자산은 1조229억 원이다. 현재 케이씨와 케이씨텍 등 상장사 2곳을 포함 국내 계열사 6곳에 해외 4곳 등 10곳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1987년 설립된 케이씨(옛 케이씨텍)가 모태로, 당시 일본에서 장비를 들여와 공급하다 1990년 자체 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장비 국산화에 나섰다. 케이씨는 2017년 케이씨텍을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그룹 내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맡은 케이씨의 최대주주는 창업주 고석태 회장

케이씨인더스트리얼 실적 및 내부거래
(단위: 억 원, 개별 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	194	256	317	472
영업이익	2	11	30	66
내부거래	83	118	107	66
비율	42.8%	46.1%	33.8%	14.0%

※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으로 17.4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아들인 고상걸 사장이 16.14%, 부인 오희복 씨 5.14%, 딸 고유현 씨 1.84% 등 40.67%를 보유 중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지난 5월 고 회장이 보유 주식 중 80만 주를 아들과 딸에게 각각 70만 주, 10만 주씩 증여하는 등 경영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

케이씨그룹 내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케이씨인더스트리얼이다. 2008년 11월 설립됐으며 국내 외 수출입 및 대형, 가스 제조 및 판매, 정보통신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작년 상회를 케이씨티앤에스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주주구성엔 케이씨가 50%, 고 사장 40%, 케이씨이앤씨 10%로 구성돼 있다.

감사보고서로 파악 가능한 최근 4년간 실적 추이를 보면 회사는 2016년 매출 194억 원에서 이듬해 256억 원, 2018년 317억 원에 이어 작년 472억 원 등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업 외형이 커지면서 흑자 규모도 늘어 영업이익은 2016년 2억 원에서 지난해 66억 원으로 불어났다. 영업이익률로는 2016년 1.0%에서 4.3%, 9.5%, 14.0%로 급격히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케이씨인더스트리얼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내부거래가 꼽힌다. 2016년 거든 매출 중 42.8%인 83억 원이 그룹 내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주요 거래처는 케이씨와 티씨케이였다. 내부거래 관행은 계속돼 2017년 46.1%, 2018년 33.8%로 30~40%대 내부거래 비율을 유지했다. 이렇게 최근 4년간 올린 내부거래 규모는 총 374억 원으로 평균 30.2%의 내부거래 비율을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www.bithumb.com

빗뽀 지수 (2020년 7월 2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66,000	1,500 (0.6%▲)	이오스	2,823	16 (0.6%▲)
리플	209	2 (1.0%▲)	비트코인골드	12,540	-430 (3.4%▼)
라이트코인	49,490	180 (0.4%▲)	이더리움 클래식	6,765	100 (1.5%▲)
대시	80,600	600 (0.7%▲)	퀀텀	1,940	5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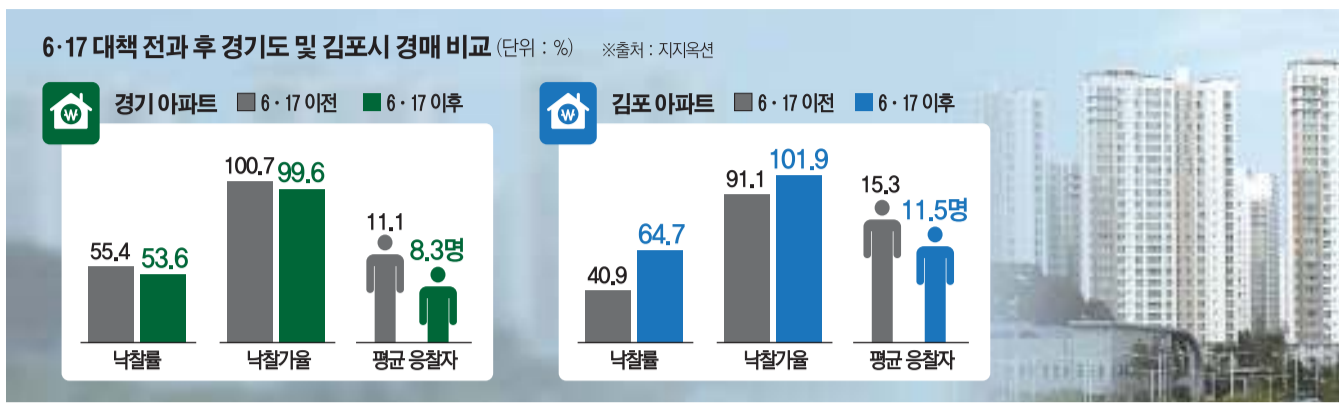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김포 아파트 경매시장까지 달군 '풍선효과'

6월 낙찰가율 97.9% 올들어 최고
6·17대책後 101.9%로 크게 올라
경기 전체는 10.7% → 99.6% 하락
"추가 규제 지정면 급등세 진정될 듯"

6·17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만인 지난 달 23일, 경기도 부천시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진행된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차 아파트 701동 7층(전용면적 59㎡)이 4억198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3억6000만 원)보다 무려 4000만 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낙찰가율(감정 대비 낙찰가 비율)은 112%로, 이 아파트 응찰자가 35명에 달했다. 6·17 대책 이후부터 6월 말까지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경기권 전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입찰자가 달려붙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입찰에 부쳐진 김포시 마산동 한강힐스테이트 503동 경매 물건(전용 84㎡)은 낙찰가율은 98% 수준으로 감정가보다 500만 원가량 낮게 팔렸지만 응찰



자는 20명에 달했다. 6·17 대책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거센 김포 지역에서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달아올랐다. 대책 발표 후 경기도 전체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이나 낙찰가율이 모두 주춤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9%로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매 물건 당 응찰자 수(13.2명) 역시 올들어 최대치다. 낙찰률(51.3%)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로 높다. 특히 6·17 대책 전후로 나눠보면 6월 말까지 보름여간 김포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9%에 달했다.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6월 1~16일까지의 낙찰가율(91.1%)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6·17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인 김포시의 주요 단지 아파트값이 치솟고 매물도 자취를 감추자 경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김포시가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까지는 경매 열기가 달아올라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 낙찰률 역시 대책 이후 오름세다. 대책 직전 김포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 나와 주인을 찾는 아파트가 10개 중 절반(40.9%)도 안됐지만, 대책이 나온 후로는 10개 중 6개(64.7%)가 팔려나갔다. 평균 응찰자 수는 대책 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줄었는데, 이는 경매 진행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기간 경기도 전체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55.4%에서 53.6%, 낙찰가율은 100.7%에서 99.6%로 하락했다. 응찰자 역시 11명에서 8명 수준으로 줄었다. 아파트 경매 열기가 달아오르자 고가 낙

찰 사례도 늘고 있다. 6·17 대책 이후 경기권에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 중 낙찰가 기준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전용 157.4㎡형과 전용 118.9㎡형은 각각 5억8000만 원, 4억9135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이 각각 102%, 107%로 모두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린 것이다.

경매업계에선 김포 아파트 경매시장이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단기간에 집값이 치솟은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경매 열기도 추가 대책 발표 이후에는 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김포지역 아파트 경매물건은 애초에 몸값이 높지 않은데다 시세보다 저렴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김포와 파주마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되면 투기 수요가 다시 서울로 눈을 돌리는 '역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KYOBO 교보증권

금융투자협회심사필재 제 17-04981호(2019.11.15~2020.11.14)
교보증권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 75-158호(2019.11.15~2020.11.14)

스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권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핫팩스, 영웅문고, 반디엔터테인먼트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 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인, 부원플러스카드 등 OI,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 할인
SKT, KT, LG+ 이동통신요금 3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A에 자동투자에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종족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청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약인중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후입에 따라 채권보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14%의 수수료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래대팰'도 3.3㎡당 1억 전용 59㎡ 25억에 팔려...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어 두번째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가 3.3㎡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파트가 등장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가 그 주인공으로, 아파트 거래가가 3.3㎡당 1억 원을 넘어선 것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이후 두 번째다.



최근 3.3㎡당 1억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진 서울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2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59㎡형이 25억 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가(22억8000만 원) 대비 2억2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지난해 8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23억9800만 원) 3.3㎡당 1억 원에 거래된 이후 2번째다.

작공 및 영등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대형 개발 호재로 강남 일대 집값이 들쭉일 조짐을 보이자 6·17 대책을 통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잠재 수요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많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 외에도 규제 적용을 앞두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줄을 이었다. 문선영 기자 moon@

'배달 음식' 로봇이 문앞까지 전달

내년 입주 '포레나 영등포'에 적용
한화건설, 우아한형제들과 MOU

A 배달로봇 서비스 업무



한화건설이 배달된 음식을 로봇이 각 가구로 전달하는 '실내 배달로봇 서비스'에 나선다. 신축 아파트 단지 중에선 내년 입주를 앞둔 서울 영등포구 '포레나 영등포'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윤용상(오른쪽)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윤현준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일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포레나 배달로봇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한화건설

한화건설은 2일 송파구 방이동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포레나 배달로봇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용상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윤현준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달로봇 서비스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로봇 시연을 관람했다. '실내 배달로봇 서비스'는 공동현관까지 음식물 등이 배달되면 로봇이 이를 전달받아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주민 가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배달로봇은 무선으로 엔

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층을 선택하는 등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 동선을 결정한다. 음식이 도착하면 주민자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배달로봇 서비스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 포레나 영등포 단지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추미애, 윤석열에 지휘권 발동

검언유착 사건 “자문단 소집 중단하고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대검, 오늘 자문단 회의 취소... 사퇴 압박에 윤 총장 거취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상 사퇴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청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민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시작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론 보도자료에 답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그동안 쌓인 윤 총장과의 불편한 감정을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부터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매번 다른 목소리를 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은 일단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윤 총장이 받아들일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반면 거부할 경우 검찰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나온다. 검찰정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대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에서는 대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 이모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대검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대검은 피의자인 이 전 기자가 요청한 자문단 소집과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진행기로 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게 되면서 검찰 내부의 갈등도 격화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

이직하며 기밀 빼와 제품 개발... 회사는 벌금 5000만원

다녔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 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초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영업비밀의 의미 및 사용, 주의·감독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대우위니어를 퇴사하면서 가전제품 도면 자료 등 영업기밀을 외장 하드에 넣어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자료를 경동나비엔 연구원들과 공유하며 제품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나비엔 법인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 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김 씨의 범행은 이직하는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한 이익은 결국 경동나비엔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경동나비엔은 펜 모터 회전수에 차이를 두거나 범위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줄이는 데 (대우위니아의 영업비밀)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보다 1년 늦게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면서 대우위니아의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무단 반출한 강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그늘 아래 옹기종기 서울의 낮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중로구 정계천 모전교 그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화성연쇄살인’ 모두 이춘재 범행

경찰, 30년 만에 수사 종료... 누명 피해자에 사죄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로 남았던 1980~1990년대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경찰의 재수사 끝에 모두 이춘재(57)의 범행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과거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는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질렀다.

더불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교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결국 총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에게 성폭행과 강도질을 했다. 살해된 피해자들 대부분이 성폭행 후 죽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처제를 포함하면 그가 살해한 여성은 모두 15명이다.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이

나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재는 경찰이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춘재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으나 공소 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춘재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살인인 ‘10차 사건’의 피해자 권모(69) 씨의 시신이 당시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발견된 것은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다. 이 때문에 권 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해 이춘재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이날 배운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과 그의 가족, 그 외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서울, 노후학교 리모델링 ‘미담학교’ 전국 확대 난항

예산 118조 필요... ‘한국형 뉴딜’ 포함 성사 미지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프로젝트인 ‘미담학교(미래를 담은 학교)’ 사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전국시·도교육청의 시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미담학교 관련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난상토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가운데 건

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 881개교 1366동을 모두 개축하거나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며, 우선 325개교에 대해 1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연차별로 미담학교를 구축할 뜻을 밝혔다. 소요 예산은 10년간 8조6000억 원 수준을 예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마중물로 미담학교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돼 전국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 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될 경우 6773개교에 117조8755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과 서울시 지원 예산을 통해 10년 동안 325개교의 개축·리모델링에 나선다고 해도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담학교 사업에 대해) 회의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면서 난항을 예상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檢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징역 2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

청했다.

이 씨는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섰다”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내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	1986년 9월 15일	첫 번째 살인사건, 화성 1차 사건 발생
	1988년 9월 16일	9번째 살인사건, 진범 논란에 휩싸인 화성 8차 사건 발생
	1989년 7월 25일	동계계 수리공 윤모(22) 씨,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불법 체포 (당시 경찰,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음)
	10월 20일	수원지법,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기소된 윤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1994년 1월 13일	15번째 살인, 청주 자택에서 처제 살해한 뒤 시신 유기
	1995년 10월 23일	이춘재, 무기징역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2006년 4월 2일	미제로 남았던 14건의 사건 중 마지막 사건 공소 시효 만료
	2019년 7월 15일	경찰, 이춘재 사건 증거를 일부 국과수에 감점 의뢰
	8월 9일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부산교도소 수감 중인 이춘재 특정
	9월 24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범행 사실 자백
	10월 4일	이춘재, 모방 범죄 판명된 ‘8차 사건’ 본인 소행 주장
	10월 14일	경찰, 이춘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
	12월 17일	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경찰관 정식 입건
	2020년 1월 14일	법원, ‘8차 사건’ 재심 개시 결정
	7월 22일	경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 이춘재, 14명 살해(처제 살인사건 제외), 9명 성폭행



“노점상과 100차례 대화... 탁트인 영등포 실현”

강남구, 폭염 위기가구 에어컨·선풍기 등 지급

초대석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로 보행환경 개선 큰 성과 360명 사는 쪽방촌 정비 나서 노후한 여의도 재개발 시급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2일 구청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50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영등포역 앞 영등로 노점 정비를 주민, 상인과의 100여 차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

민선 7기 임기 반환점을 돈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일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성과로 영등로 보행환경 개선을 꼽았다.

불법 노점상 70여 곳이 가득했던 영등로는 현재 구역화된 가게 26곳이 들어서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했다. 보도와 가로수를 정비하고 버스 승차대를 확장 설치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채 구청장이 내세운 ‘탁트인 영등포’ 비전이 반영됐다. 채 구청장은 평소 청소·주차·보행환경 개선 등 구민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기초행정 강화에 주력한다.

채 구청장은 “영등포에서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영등포 전역으로 확산해 주거·교육환경, 복지시스템이 강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구청장은 향후 쪽방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영등포를 도약시킬 계획이다.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은 360여 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을 2개 블록으로 나눠 복합시설1에는 쪽방 주민

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를 짓는다.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가구를 공급한다.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지구지정을 하고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목표로 추진 중이다.

채 구청장은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할 것”이라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에게는 영업보상을 하거나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구청장은 여의도 재개발·재건축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시범아파트’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아파트가 밀집화된 여의도가 최후”라며 “50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과열 등 여러 이유로 여의도 개발이 보류돼 구민의 좌절감,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 서울시, 우리 구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구청장은 “파크원 준공,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 오픈으로 초대형 상권이 생기면 여의도 개발의 스타트를 끊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재건축·재개발을 안 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영등포구는 영등포전통시장 등 재래시장 20곳을 활성화하고 영등포역 일대에 5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채 구청장은 “교육·경제·안심·복지·민주도시 5대 목표 62개 공약사업 중 3월 기준 67%(완료 16개, 추진 46개)를 달성했다”며 “공약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 강남구가 8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폭염에 취약한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지원에 나선다.

2일 강남구에 따르면 심층상담 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가구별 30만~100만 원을 받지만 등 폭염취약 가구에는 에어컨, 쿨매트,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급한다.

발급대상은 총 2만1677가구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자 중 △만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 4999가구 △가계소득이 없는 1만4514가구 △반지하 거주 1884가구 △전기체납·금융연체 등 위기에 처한 미취업 일용근로자 280가구다.

강남구는 문자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상자를 발굴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금천구, 600억 특별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서울 금천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소액대출사업을 추진한다.

금천구는 서울 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금천구 골목 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된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000만~3000만 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대출일로부터 1년간은 구에서 이자를 전액 지원하며 이후에는 연 2% 정도의 저금리로 자금을 운용한다.

용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24일까지 금천구청 12층 골목 경제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서울시 “코로나 확산 우려... 내일 민주노총 집회금지 행정명령”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2일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

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0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재미

공감

위로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채널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채널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채널 TV)

북경의 주·평양·개성·한양을 잇는 燕行길
사신 행렬 따라 음식도 국경을 넘나들었다



중의 국수·만두는 평양서 맛·형태 바뀌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며 변화를 거듭했다

그 옛날 평양은 '음식의 용광로'였다

‘북 쪽의 음식’이라고 말한다. 실랑민들이 그리워하는 음식이다. 한국전쟁 무렵 월남한 이들은, 당연히 고향 음식을 그리워한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서울 장충동, 오장동 냉면, 전국적으로 퍼진 족발, 북한식 큼직한 왕만두가 바로 그것이다.

젊은 층들도 북한 음식에 열광한다.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도 아니다. 기본 적도 없다. 한국전쟁 무렵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북한 음식’을 찾는다. 젊은 층의 핫플레이스인 서울 홍대 지역에도 ‘북한 음식 전문점’이 성행한다. 실랑민들의 음식과는 또 다르다. 최근 한국으로 온 새터민들이 차린 음식점들이다. 평양냉면, 함흥냉면, 왕만두, 어복쟁반, 가리탕, 가지미식해 등 종류도 다양하다.

왜 젊은 층들도 북한 음식에 열광할까? ‘북한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만두, 냉면을 중심으로 북한 음식을 알아본다.

평양냉면과 국수

왜 평양의 음식이 발달했을까?

“북에는 평양이 있고, 남에는 진주가 있다”는 말이 있다. 북에서는 평양이 가장 번화한 도시이고, 남에서는 진주가 가장 큰 도시라는 뜻이다. 도성인 한양을 제외하면 북에서는 평양이 으뜸, 남에서는 진주가 으뜸이었다. 평양냉면이 있듯이, 진주에도 냉면이 있었다. 진주냉면이다. 냉면이 상업적으로 팔렸음은 큰 도시였고, 관청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다는 의미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면 시장이 서고, 시장이 서면 밥집도 많이 생긴다. 두 도시 모두 큰 도시였고, 높은 벼슬 아치가 있었고, 시장도 있었고, 왕래하며 식사를 하는 이도 많았다.

북한은 중국과 맞닿아 있다. 중국 쪽 관문은 국경 도시 의주다. 대중국 통로였다. 중국과 조선을 드나드는 중국 혹은 조선의 사신들은 ‘북경-의주-평양-개성(해주)-한양’을 잇는 도로를 따라다녔다. 한양과 중국 북경을 잇는 길은 멀었다.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긴 노정이다. 사신단은 늘 주방장 격인 주자(廚子)와 동

행했다. 음식점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다. 수백 명의 사신단 식사는 주자 몇 명이 감당했다.

주자들은 중국에 가서 새로운 음식들을 만난다. 귀국할 때는 의주-평양을 잇는 길을 따라온다. 북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다. 평양에서 사신들은 제법 오랜 기간 머물며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했다. 평양의 관리들은 중국과 조선의 사신단 맞이 업무였다. 봉제사접빈객(奉祭事接賓客)이다. 제사 모시고 손님을 맞이하려면 늘 음식이 필요하다. 평양은 문물의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음식을 받아들이는 큰 도시였다.

국수와 만두, 돼지고기 등은 중국이 앞섰던 음식들이다. 이런 음식들은 중국-의주-평양을 거쳐 한반도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들어왔다.

냉면은 차가운 국수다. 국수는 중국이 발달했다. 한반도에는 밀가루가 귀했다. 중국은 밀가루가 흔했다. 우리의 주식이 쌀인 반면, 중국 북쪽은 밀가루가 주식이다. 앞선 국수 음식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국수를 가장 먼저, 널리 받아들인 곳은 평양이다. 평양에서 국수의 일종인 냉면이 발달한 이유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반도에 ‘경부철도’를 건설한다. 경부철도는 의주와 부산을 잇는 철도다. 북, 만주, 중국, 한반도의 물자를 빼앗다시피 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1920~30년대에 평양의 최고 생산물 중 하나는 냉면이다. 건면 냉면 공장이 있었고 이미 평양냉면은 유명했다. 일본은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각종 곡물과 한반도의 곡물을 이용해 냉면을 만들고, 이를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1930년대에는 냉면집을 중심으로 ‘동맹파업’도 일어났다. 1938년 12월 1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평양의 냉면집 파업’ 이야기가 실려 있다. “평양면업노동조합(平壤麵業勞動組合)의 피고용인 240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내용이다. 요구 조건은 역시 임금 인상이다. 11월 18일, 이들이 현행 임금 90전을 1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주인들은 12월 1일자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날짜를 12월 10일로 연기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행한 것이다. 결국, 민간의 마찰에 경찰이 개입한다.

평양에서만 냉면이 유명했던 것은 아니다. 일제강

점기, 경성(서울)에도 냉면집이 많았다. 파업도 있었다. ‘평양냉면 파업 사건’ 이전인 1931년 6월 1일 자 신문 기사다. 제목은 ‘평양냉면업 배달부맹파’다. 평안옥이라는 냉면집 배달부들이 동맹파업을 했다는 뜻이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평양옥’은 경성의 중심지인 서린동 89번지에 있는 냉면 전문점이다. 이곳에는 종업원 10명이 있었다. 모두 배달부다. 일급은 1원. 문제는 기사가 실리기 전인 5월 29일, 주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90전으로 낮췄다. 다음 날엔 직원 3명을 해고했다. 배달부들은 일하지 않겠다고 동맹파업으로 맞선다. 경성 한가운데인 서린동의 냉면집 이름이 ‘평양옥’이다. 결국 평양냉면이다.

‘평양냉면’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한다. 경성을 비롯해 각 지방에도 냉면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평양냉면이 널리 퍼진다.

긴 세월 동안 중국-평양-서울을 잇는 길을 따라 음식은 전해졌다. 중국 국수 문화가 평양에 전해지고, 평양의 냉면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퍼졌다.

만두와 상화

만두는 냉면보다 더 복잡하게, 여러 차례 한반도로 건너온다. 처음은 고려시대 말기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만두는 몽골 침략 때 한반도로 처음 건너온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시대 초기 기록에는 만두가 없으나,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쌍화점’의 쌍화(雙花), 상화(霜花)는 만두다(쌍화점이 만두 전문점이 아니라 액세서리 파는 곳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고려시대 말기에는 궁중에서 만두를 즐겨먹었다가 사형당할 도둑 이야기도 전해진다. 고려-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만두는 ‘만두’ 혹은 ‘상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나타난다.

조선시대 말기, 임오군란과 청일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중국 군인, 민간인, 상인들이 한반도로 건너온다. 짜장면, 짬뽕과 더불어 만두를 한반도에 전한다. 지금도 인천 차이나타운, 금강 유역의 군산, 익산 등에는 화상노포가 많다. 이들은 여전히 ‘청요리’와 더불어 짜장면, 만두 등을 내놓고 있다.

조선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다. 외교적으

로도 사대의 나라였다. 조선은 1년에 최소한 4차례 중국에 사신을 파견했다. 수백 명의 인원이 중국과 조선을 오갔다. 중국 측 사신도 빈번히 한반도를 오갔다. 사람을 따라 음식도 전해진다.

우리는 중국에는 없는 만두전골, 만두국도 만들었다. 만두가 한식이 된 것이다.

평양, 의주는 중국으로부터 만두를 받아들여 한반도 전역으로 퍼뜨렸다. 서울에서도 만두국을, 남쪽에 서도 교자를 흔하게 먹는다. 조선시대 말기,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로 들어온 화상들도 만두를 전했다. 북쪽의 큰 만두, 왕만두는 한반도로 들어온 중국 만두와 비교적 닮았다.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만두는 작아진다. 개성만두도 있고 서울식 만두도 있다. 한반도는 음식의 용광로다. 모든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 변형, 변화, 발전시킨다. 중국 음식, 북한 음식은 서울로 오면서 또 달라진다.

오늘날 서울의 북한 음식도 마찬가지다. 여러 차례 중국에서 받아들인 다음, 한반도 식으로 바꾼 것이다 시 서울로 전해진다. 실랑민들이 전하고, 새터민들이 또 전한다. 북한 음식이라고 부르지만, 시대별로 음식은 달라진다. 자신들이 떠났던 순간의 ‘북한’ 음식이다. 실랑민들의 북한 음식과 새터민들의 북한 음식이 다른 이유다.

만두와 냉면은 우리 것이지만 우리의 전통음식은 아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다음, 변형·발전시켜 우리 음식으로 만든 것이다. 중국, 북한 지역 사이에도 여러 차례 교류가 있었다. 이런 교류로 만두, 냉면은 발전해 한식이 된다. 북한 음식도 마찬가지다. 한국전쟁 때와 그 이후 여러 차례 한국으로 건너온다. 한국에 온 음식들은 조금씩 변화, 발전하다 어느 순간에는 서울식, 한국식, 한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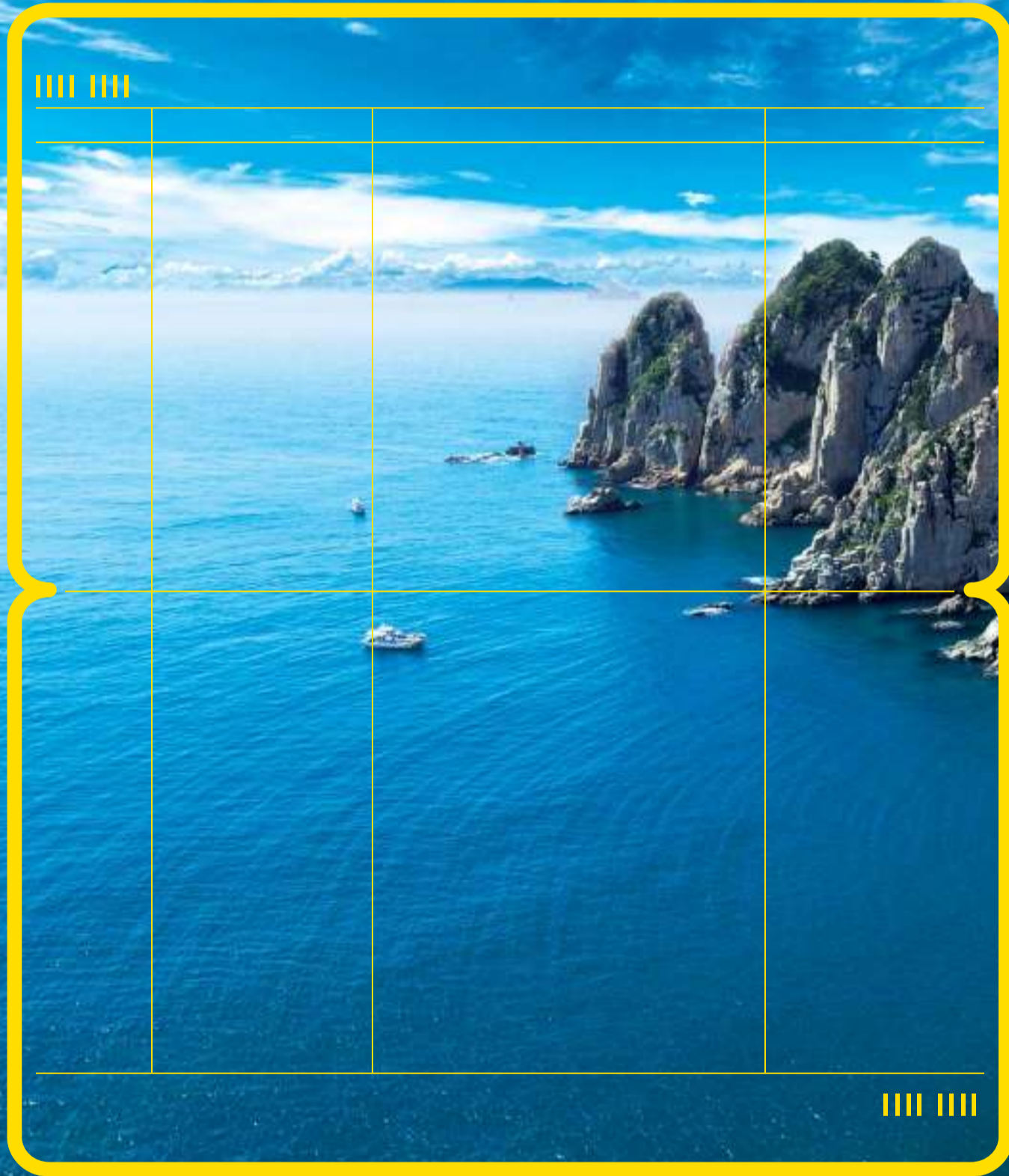
젊은 세대들이 북한 음식에 대해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다. 존재하는 나라, 뉴스 등에서 자주 보는 나라, 그러나 갈 수 없는 미지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음식에 대한 호기심보다 더 강하다. 쉽게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맑은바다패키지와 함께하는 海 맑은 변화

KB국민은행은 더 푸른 바다, 더 맑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통영 소매물도

KB맑은바다적금

- * 신규가입 1좌당 은행이 5,000원씩 매칭기부
- * 맑은바다를 위한 활동에 동참 시 우대이율 제공(최고 연0.8%p)

KB맑은바다공익신탁

- *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고객이 신탁보수(선취)의 10%를 기부하는 공익적 금융 상품
- *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

[KB맑은바다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KB맑은바다공익신탁]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발생하는 선취보수(1%)의 10%를 환출받아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기부 목표금액 1억원 달성 시 판매가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229호(2020.06.26),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까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084호(2020.7.2~2020.12.31)

윤종원의 혁신금융, 창업기업 61곳 키운다

〈IBK기업은행장〉

‘IBK 창공’ 하반기 대상기업 선정...5개월간 프로그램 지원 “아이디어 있는 창업가 모험자본 충분히 공급, 성공모델 확산”

“IBK창공의 성장 모델을 확산시키고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에게 모험자본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윤종원(사진) 기업은행장이 1월 취임식에서 혁신금융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윤 행장은 취임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 구로’와 IBK창공 구로의 1기 육성기업인 ‘올트’를 방문하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은 2020년 하반기 ‘IBK창공(創工)’ 혁신 창업기업 61곳을 최종 선발하고 마포·구로·부산에서 5개월간의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한다. 2020년 하반기에는 마포 5기 19개, 구로 4기 20개, 부산 3기 22개 기업이 선발됐으며, 총 645개 기업이 지원해 10.5대 1의 경쟁

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기업은 플랫폼, IoT, ICT 등 정보통신 분야가 3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게임, 영화, 광고, 디자인 등을 활용하는 언택트 산업인 지식서비스(26%) 분야와 건강진단(13%) 분야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 등 기술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기업은 사전 진단평가 이후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IBK창공은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지원과 법률, IP,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IBK금융그룹의 투·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5개월간 전문 액셀러레이터 기관과 협업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포센터는 엔피파트너스, 구로센터는 씨엔티테크, 부산센터는 아이파트너스가 선발기업에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한



1일 IBK창공 구로센터에서 열린 ‘IBK창공 구로 4기 입소식’에서 김재홍(앞줄 가운데) IBK기업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과 선발 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다.

IBK창공은 2017년 12월 마포를 시작으로 구로, 부산에 개소해 올 상반기까지 182개 기업을 육성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융자 등 금융서비스 1008억 원, 멘토링·컨설팅·IR 등 비금융 서비스 2172회를 지원했다”며 “IBK창공은 개소 이후 2년 6개월 만에 1000억 원 이상 금융 지원, 2000회 이상 비금융 지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창업·혁신기업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 해외 진출 희망 기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 외부 기관과 연계해 2022년까지 약 500개 기업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창업기업 라이프사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적극 도입해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지속 기여할 계획”이라며 “최종 선발기업에 기업별 현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에 이성희 농협회장 만장일치 추대



이성희(사진) 농협중앙회장이 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의 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농협중앙회는 1일 저녁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0년 ICAO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ICAO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농업분과 기구로 1951년 창설돼 전 세계 28개국 33개 회원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1998년부터 한국 농협중앙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주요 농업·농촌·농협 현안에 대해 각국 농협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디지털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회원기관의 역량 증대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활동을 강화해 국제기구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카젬 한국지엠 사장, 현장 소통경영 창원공장 방문 “위기극복 동참” 당부



카허카젬(사진 왼쪽) 한국지엠 사장이 창원 공장을 방문, 현장 소통경영에 나섰다.

카젬 사장은 하반기 시작 첫날인 1일, 창원 사업장을 방문해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을 위한 시설 투자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임직원과 만나 경영 현황을 공유하는 등 현장 경영 보폭을 넓혔다.

임직원과의 미팅에서 카젬 사장은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물론 임직원 모두의 하나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속하고 있고 수입차 시장에서 콜로라도와 트래버스가 선전하는 등 세보레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임준택 수협 회장, 대천항서 침적쓰레기 수거활동

“정부·지자체 참여 확대해야”

임준택(사진 왼쪽) 수협중앙회장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쓰레기 수거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대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1일, 2일 이틀간 충남 보령 대천항 일대 연안 어장에서 침적쓰레기 수거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수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바다에는 약 14만 톤의 침적쓰레기가 가라앉아 있

다.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업생산 피해를 비롯해 폐어구로 인한 선박사고 등 침적쓰레기에 따른 피해액은 연간 약 4500억 원에 달한다. 유령어업이란 유실된 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현상이다.

임 회장은 “이번 침적쓰레기 수거활동은 금어기 유류 어선을 활용한 수거사업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모범사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중앙회에서는 순차적으로 권역별 수거활동을 통해 정



부예산 확보와 지자체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HMM 초임사관 62명 배출

“여러분이 해운 재건의 주역”

배재훈 사장, 직접 사령장 수여

HMM(옛 현대상선)은 부산 HMM오션서비스 트레이닝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초임사관 사령장 수여식’에서 62명의 초임사관을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배재훈 HMM 사장은 62명의 초임사관들에게 직접 사령장을 수여했다. HMM의 자회사인 HMM오션서비스는 선박 운항 및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이 주축이 돼 선박 관리, 해상 인력 관리, R&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 전문회사다.



배재훈(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HMM 사장은 1일 부산 HMM오션서비스에서 개최된 ‘2020년 초임사관 사령장 수여식’에 참석해 초임사관들에게 직접 사령장을 수여했다. 사진제공 HMM

HMM 초임사관들은 약 2개월 동안 해양환경관리실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선박조종 및 기관 조종 시뮬레이션 등 전문 실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선박에 승선하게 된다.

배 사장은 “HMM 최첨단 선박의 운항을 직접 책임질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해운 산업 재건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해운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인사

- ◆해양수산부 ◇승진 △해양공간정책과장 권순욱
- ◆에코보험공사 ◇부사장 전보 △기금관리 단장 박태준
- ◆한국무역보험공사 <승진> ◇부서장급 △혁신심사부장 최승일 △인사부 부장대우 송진성 △인사부 부장대우 윤찬태 ◇팀장급 △혁신심사부 책임심사역 진혜윤 △해외영업팀장 김연주 △프로젝트개발팀장 최승웅 △평가·오피쇼어팀장 김시범 △국외채권팀장 유진표 △법무팀장 김동혁 △중양지사 책임심사역 문명자 △전북지사 책임심사역 이정원 <전보> ◇부서장급 △자금부장 김용환 △핀테크사업부장 김기현 △국외보상채권부장 이원석 △감리부 수석전문역 임필상 △감사실장 유승희 △감사실 수석전문역 류동운 △인전지사장 이은근 △경남지사장 신상일
- ◆대한석탄공사 ◇1급 △기획조정실장 김동환 △안전생산실장 권태중 △감사실장 박성남 △화순광업소장 김기범 △연구소장 신재민 ◇2급 △혁신기획팀장 홍강욱 △예산팀장 송경철

- △경영평가팀장 석근우 △경영정보팀장 정성희 △비상보안팀장 남연원 △경영관리팀장 최광진 △재무관리팀장 최용욱 △상생협력팀장 박종철 △생산개발팀장 박기창 △감사실 청렴추진팀장 안장현 △장성광업소 기획부장 이주복 △장성광업소 수광부장 배주석 △장성광업소 철암생산부장 김학수 △장성광업소 중앙생산부장 송영배 △도계광업소 기획부장 이석태 △도계광업소 동덕생산부장 정봉현 △화순광업소 부소장 오대현 △화순광업소 기획부장 손성원 △연구소 남북협력팀장 정구동
- ◆한국전기안전공사 ◇1급 이동 △검사점검 처장 황동연 △경남지역본부장 임진수 △인천 지역본부장 최호진 △경영지원처장 손명복 △기획혁신처장 김한성 ◇2급(갑) 이동 △대구 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지사장 김선준 △경기지역본부 용인지사장 이인수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지사장 이영식 △제주지역본부장 조성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소통실장 최태근
- ◆한국감정원 ◇부원장 임명 △부원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한승렬 ◇상임이사 선임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양기돈 ◇실처장 전보 △보상사업처장 정진택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신규 임용 △상무겸 기획조정본부장 서장석
- ◆건설공제조합 ◇승진(2급) △부산지점 부지점장 신미연 ◇전보(팀장·부지점장) △IT운영팀장 임동철 △공제보상팀장 김지현 △신용정보팀장 박성식 △중양지점 부지점장 정호원 △삼성지점 부지점장 김미애 △의정부지점 부지점장 장성만 △안산시점 부지점장 이건승 △일산지점 부지점장 김선철 △대전지점 부지점장 송현배 △전주지점 부지점장 정운석 △광주 지점 부지점장 윤인호 △순천지점 부지점장 박진호 △창원지점 부지점장 정기수 △강남보상센터 부센터장 강인서 △중부보상센터 부센터장 류창선 △고객중심고도화TF팀장(겸직) 이종일 ◇파견 △건설단체총연합회 윤성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안병광
- ◆KB국민은행 ◇승진 △경기남부(오산안양) 지역본부장 김영복 △광주종합금융센터 지점장 김련 △노원지점장 남은애 △상무지점장 송순재 ◇전보 △서인천종합금융센터장 박성휘 △광주지역점장 김용남 △범어동지점장 윤태석 △사상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이상필 △서광주지점장 이길룡 △서초2동지점장 김훈식 △성

- 서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손영우 △신현동지점장 이윤석 △진접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전성일
- ◆교보생명 ◇FP자원단장 △강남 전상혁 △서초 손정환 △광교중앙 황선준 △부산중앙 장환수 △수성 장성철 ◇GFP사업단장 △서울중앙 운영팀 △서해 조병제 △서울 양승일 △팀장 △시정확대추진(다원서비스센터장 겸임) 정기환 △법무지원 이한문 △연금지산운영 박승호 △센터장 △건설트블랜딩 김재욱
- ◆오렌지라이프 ◇부서장 임명 △증권운용팀 팀장 김성수
- ◆신한금융투자 <임원 선임> ◇본부장직무대행 △호남총정영업본부 임혁 △전략기획본부 한일현 <임원 전보> ◇부서장 △리테일그룹 이선훈 <부점장 선임> ◇부서장 △기관금융영업부 이승원 △채권영업부 김진오 <부점장 전보> ◇부서장 △법인금융영업부 진상덕 △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이용훈 △파생영업부 박영민 △FICC상품부 최인석
- ◆신한카드 ◇신규 선임 △글로벌사업본부장 정순영 △영업지원팀장 김경일 △대구고객센터장 황상훈 △MyCredit사업추진단 파트장 조부연 ◇이동 △MyData사업추진단 셀장 우상수

김영진 한독 회장, 선친 이어 2대째 獨 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 받아

한독은 김영진 회장이 한국과 독일의 교류와 협력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훈으로 김 회장은 선친이자 한독의 창업주인 고 김신권 회장에 이어 2대째 독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김신권 회장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세계적인 독일의 화학·제약기업 헥스트와 기술제휴(1957년) 및 합작(1964년)을 하며 양국간의 경제 협력을 훌륭하게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외국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십자대훈장을 받았다. 유혜은 기자 euna@

대한석유협회장에 정동채 前 장관

대한석유협회는 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제23대 협회장으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임임 회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고등학교와 경희대 국어국문학부를 졸업했다. 국회에서는 제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제41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부음

- ▲동수환 씨 별세, 정성철(정성흠법률사무소 대표)·박노준(안양대학교 총장) 씨 장모상 = 2일, 이화여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2-2650-2741
- ▲정대규 씨 별세, 공성택(기호일보 상무이사) 씨 장인상 = 2일, 인천 송림동 청기와장례식장 301호, 발인 4일 오전 8시, 010-5331-3816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 주핀란드 대사

강경일변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국에는 해고를 당하자 곧바로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을 해코지하는 데 온 정신이 팔려 있다. 정책 면에서도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든 국제기구든 드잡이하고, 부수고, 때리자는 주장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는 고사하고 지금의 미국이 그럴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달 내놓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마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밀스런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럴 만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우선 그가 회고록에 쓴 내용들은 아직도 살아 있는 비밀들로 보인다. 그가 말하는 주제들은 대부분 민감하며 현재진행형이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 정상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한 말들을 시시콜콜 폭로하고 있다. 읽기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위험하고 불편한 내용들이다. 무대 뒤에서 일어난 일은 무대 뒤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그것은 진실과는 다르며,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도 다른 문제다.

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일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예를 들면서 자신을 변호한다. 그러나 게이츠 전 장관은 2011년 7월에 장관직을 그만두었고 회고록은 2014년 1월에 출간되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2012년 미국 대선과도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 반면 볼턴은 2019년 9월에 국가안보보좌관에서 해임되고 나서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 3월부터 책을 출간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는 책에서 스스로를 규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취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최악의 규율 해이가 될 수 있다.

받아 적기보다는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 몸짓 등을 살피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 아무리 꼼꼼하게 적어도 실제 말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도나 뉘앙스를 빠뜨리고 자세하기만 한 기록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는 매우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람은 생각뿐 아니라 기억도 주관적일 수 있다. '깨알' 같다는 그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2000년 평양에 가서 '김일성(Kim Il Sung)'과 외인잔을 부딪쳤다고 한 부분은 오타일 수 있지만 그가 정말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꺼림칙한 느낌이 들게 한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을 통보하는 전화통화에서 "당신에게 백악관에서 제일 센 자리를 주겠다, 의회의 민주당원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관을 그의 책에서 단 한 번도 '대통령(President Trump)'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국가안보보좌관의 임무는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실행에 옮기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강경일변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국에는 해고를 당하자 곧바로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을 해코지하는 데 온 정신이 팔려 있다. 그의 회고록은 그 일환으로 보인다. 정책 면에서도 그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든 국제기구든 드잡이하고, 부수고, 때리자는 주장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 정책들이 타당한 것인지는 고사하고 지금의 미국이 과연 그럴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의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의 회고록이 기록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그는 회의나 회담에서 나온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안보보좌관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 나온 말을 꼬박꼬박



이종호 과학칼럼

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자로 부각된 것은 1905년 스위스 특허국 직원으로 있으면서 발표한 세 가지 주요 논문인 상대성이론,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때문이다. 논문을 발표한 이후 아인슈타인은 1909년 5월 취리히주립대학의 원외교수(정교수와 조교수의 중간)에 임명되면서 특허국을 사임한다. 그 후 프라하대학의 교수로 잠시 있다가 1914년 베를린대학 교수로 연구에만 전념했다. 1929년 헤브론에서 반유대인 폭동이 일어나고 1930년대 초 히틀러의 나치스가 득세하자 아인슈타인은 군국주의와 파시즘에 적극 반대했는데, 유대인인 그가 투옥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스위스 시민인 데다 노벨상 수상자였기 때문이다. 1932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그는 다행히 미국에 있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망명했다. 1933년 프린스턴 고급학술연구소의 수석부장으로 임명되어 망명생활이 정착

되면서 계속 연구에 몰두했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최대 과학자로 칭송받았지만 그의 생활은 매우 검소했다. 백발이 제멋대로 자랐고 신사복과 넥타이 대신 스웨터와 가죽 재킷을 애용했다. 연주가 빠지는 바이올린 실력과 요트 조정이 그의 취미이자 낙이었다. 그는 첨단 과학자로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지전능과 조화의 신을 믿었다. 덴마크의 유명한 물리학자 보어와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논쟁했을 때도 "신은 주사위 놀음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보어를 화나게 했다는 이야기는 전설 아닌 전설이다.

탈락하자 학자들도 노벨상 위원회에 굶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자 위원회는 결국 그의 수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드디어 1921년, 1915년에 미국의 밀리컨에 의해 실험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광전효과 연구로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수여했다.

의 노벨상은 '양자광학적 결맞음 이론으로 현대 양자광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광주파수 및 빛 기술로 정밀분광학 발전에 기여'한 미국과 독일의 과학자 3인이 받았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현재 우리 실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는 내비게이션의 기초원리에 대한 연구다. 내비게이션을 움직이는 위성항법장치(GPS)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킨 것으로, 내비게이션에서 생기는 오차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정확하게 교정시킨다. 2017년 노벨상은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예측한 중력파를 2015년 실험적으로 검증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 효종(孝宗) 명언 "금이나 옥, 비단과 같은 보물 대신 우리나라의 포로를 돌려주소." 조선의 17대 임금. 인조(仁祖)의 차남.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와 청나라에서 8년간 인질 생활을 한 그에게 청이 금은보화를 보내자 한 말. 즉위 후 은밀히 북벌계획을 수립해 군제 개편, 군사훈련 등에 힘썼으나 북벌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상평통보(常平通寶)를 화폐로 유통시키는 등 경제시책에 업적을 남겼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619~1659.

광전효과가 결코 상대성이론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TV, 컴퓨터, 태양전지, 광통신이나 리모컨의 수신부, 광센서 등에 사용되는 광다이오드,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에 사용되는 DDD 칩 등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모두 광전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문도 그의 광전효과로 작동한다.

1879년생인 아인슈타인이 2017년까지 살았다면 5개의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있지만, 여하튼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못 받은 것은 그의 이론이 워낙 앞서므로 당대에 검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너무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것은 영재 과학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뜻이다.

☆ 고사성어 / 노우지독(老牛舐犢) 늙은 소가 송아지를 핥는다는 뜻.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이르는 말. 후한서(後漢書) 열전(列傳)이 원전. 양수(楊修)는 위(魏)나라의 조조(曹操) 휘하에서 주부(主簿)를 지냈다. 촉한(蜀漢)의 유비(劉備)와 한중(漢中)을 놓고 벌인 전쟁에서 조조가 암호를 계류(雞肋)이라 하자, 양수는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철수 준비를 했다가 처형됐다. 양수의 아버지 양표(楊彪)에게 조조가 "왜 그리 모습에 파리고 해쓱하니?"고 묻자 "아들이 죽고 나니 늙은 어미 소가 어린 송아지를 핥아주는 마음처럼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지닌 슬픔에 해쓱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조는 양수를 죽인 것을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대표적인 상대성이론은 곧바로 물리학자들의 주목을 끌어 1908년부터 연이어 노벨물리학상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그러나 노벨상 위원회는 실험에 의한 검증을 강조했기 때문에 천하의 상대성이론이지만 절대적 검증 없이 노벨상을 수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1910년부터 1922년까지 1911년과 1915년을 제외하고 노벨상 추천을 받았지만 계속 탈락하였다. 아인슈타인이 계속

아인슈타인이 워낙 여러 가지 독창적 이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으로 몇 개의 노벨상을 받았겠느냐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장수했다면 1961년 뫼스바우어와 함께 상대성 이론 검증으로, 1964년 메이저와 레이저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2005년

포커 게임 등에서 쓰이는 용어 '올인(All in)'과 '오링'은 같은 말이다. 올인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 오링이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올인의 경우 '승리를 확신해 자신이 가진 판돈을 전부 건다'라는 뜻으로 쓰이나 오링은 '판돈을 전부 잃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커 게임에선 호기롭게 올인을 외쳤지만 오링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승리를 확신해 가진 것을 모두 걸었으나 패배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모습이 그렇다. 일본은 한국 경제에 올인 중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은 핵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당시 일부 품목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해 한국의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1

년이란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한국에 득이 됐다. 한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고 일부 품목에서는 국산 제품 비중이 일본산을 역전하는 성과도 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고순도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탈라화학, 쇼와덴코 등

일본 기업은 대형 수요처를 잃어 매출이 감소해 주가가 1년 새 20%가량 빠졌다. 또 수출규제 여파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노(NO) 재팬'을 촉발했다. 올린이 오링이 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다. 일본의 한국 경제를 위한 올인은 현재진행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주요 7개국(G

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일본은 '틀 유지'를 강조하며 한국 참여 반대 의사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명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도전에도 탄지를 걸 태세다.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성 계획을 입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시사상식 / 딤트(dint)족 'double income'과 'no time'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 맞벌이로 가계의 수입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정작 돈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말.

이제는 한국이 '리 올인'(Re-All in)을 외칠 때다. 정부는 소부장 자립화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 일본에 보란듯이 G7 참여와 WTO 사무총장 선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신조어 / 이태백·이구백 20대 태반 또는 90%가 백수라는 뜻.

☆ 유머 / 되로 주고 말로 받을 때 말쑥만 피우는 아들이 또 사고를 쳤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애가 왜 저 모양이야?"라고 하자 아내가 더 화를 내며 한 말. "1분도 안 걸려 만든 놈이 똥들 제대로 하겠어!"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아인슈타인이 땀을 노벨상은 몇 개?

이투데이, 말투데이

기사수첩



노승길 정치경제부/noga813@

'올인'과 '오링' 사이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의 홍콩

찰스 응 홍콩투자청 부청장

“현 국제정세에도 홍콩 펀더멘털 강하다”

“외국 회사들은 도시 내 금융과 경제 시스템이 전혀 변한 게 없으니 평소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홍콩이 전 세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거세게 몰아친 데 이어 올해는 미중 갈등의 핵심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홍콩을 향한 세계 경제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투데이는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달 홍콩투자청의 찰스 응(Charles Ng) 부청장과 의 인터뷰를 진행, 현 상황과 대외적 불안요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찰스 응 홍콩투자청 부청장은 본지와 의 인터뷰에서 “홍콩에서 벌어진 최근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펀더멘털은 강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자본 유출 발생 없어… 페그제 유지 자신” = 일련의 사태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경제다. 당장 홍콩에 특별지위를 박탈한 미국이 추후 상황에 따라선 홍콩 주주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우려도 나오는 등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론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전 세계의 우려와 관련해 응 부청장은 여전히 자국 경제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응 부청장은 “홍콩과 전 세계에서 벌어진 최근의 상황들도 불구하고 홍콩의 펀더멘털은 강하다”며 “홍콩의 주식시장은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통화당국은 최근 주요 자본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반복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정부가 페그제 유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페그제(고정환율제)는 홍콩 외환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간 미국 달러당 7.75~7.85 홍콩달러로 환율이 고정돼 안정적인 외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외환 안정은 곧 외국 자본 유입의 유인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페그제 유지는 홍콩 입장에서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미국의 제재에 따라 페그제의 존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홍콩 당국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 부청장은 “홍콩 내 주요 은행과 회사들이 홍콩에 긍정적인 지지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홍콩이 고립되지 않았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달 초 영국계 금융기관 HSBC는 “홍콩의 회복, 경제 재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규제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스탠다드차타드(SC) 역시 “(홍콩보안법이)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사실상 홍콩보안법에 대한 지지의사로, 일각에선 중국의 통제에 이들이 꼬리를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적어도 홍콩 경제환경에서만큼은 두 거대 은행의 지지가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응 부청장은 이 같은 이유들을 토대로 “외국 회사들은 도시 내 금융과 경제 시스템이 전혀 변한 게 없으니 평소와 같이 그들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홍콩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프로젝트, GBA와 BRI = 아시아 대표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존재감에 대해 응 부청장은 “보통법 체제하의 건전한 통제와 ‘자

HSBC·SC 등 주요 은행·기업들 홍콩의 미래에 긍정적 지지 표시 자본유출 없고 페그제 유지 가능

‘중국 내 완전한 국제도시’ 면모 홍콩에 신사업 기회 많을 것 ‘일대일로’ 투자금 허브 역할도

한국과 상호 교역 5·6위 주요국 중국과의 지리·경제적 연관성 커 핀테크·생명공학·AI 투자 유망

본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꼽았다. 그는 이 두 요소가 국제 금융의 중심이 되는 데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관련성도 장점으로 거론했다. 그는 “더욱이 중국 내 완전한 국제도시로서 홍콩이 가진 입지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독자적 우위를 지닌다”며 “중국과의 인접성은 외국 회사들로 하여금 중국에 쉽게 접근하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신사업의 기회를 잡고자 홍콩에 거점을 세우게끔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콩은 GBA(Greater Bay Area)와 BRI(Belt and Road Initiativ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GBA는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 계획으로, 중국 선전을 중심으로 광저우, 주하이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앞서 2018년 홍콩과 광둥성, 마카오를 연결하는 해상대교와 광저우-홍콩 간 고속철도가 완공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곳은 핀테크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이른바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알려져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아시아에선 단일 경제권으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RI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의미한다. 응 부청장은 “2013년 BRI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기 위해 홍콩에 레버리지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홍콩은 GBA의 계획하에 해외 기업이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는 데 있어 국제 금융의 허브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해당 프로젝트는 도시와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홍콩이 바라보는 한국… “핀테크 환경

한국 기업에 매력적인 것” = 지난해 한국은 홍콩의 여섯 번째 무역 파트너였고, 반대로 홍콩은 한국의 다섯 번째 파트너였다. 응 부청장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766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평균 5.1% 성장한 수치”라며 “또한 홍콩은 한국과 중국 본토 간 상품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출입항”이라고 설명했다.

응 부청장은 국내 기업들의 차세대 투자 유망 분야로 핀테크와 생명공학,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기술과 스마트업이 더해진 스마트시티는 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싶어하는 한국 기업들에 매력적일 수 있다”며 “(무역 거래에서 볼 수 있듯) 양국은 서로 그동안 많은 것을 공유해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 부청장은 “홍콩의 혁신기술 부문은 중국 선전과 함께 지난해 세계혁신지수에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며 “지난해 홍콩 내 스타트업 숫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3184곳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는 번성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금융 기술과 생명공학, AI 및 스마트시티는 홍콩 개발을 위한 4가지 강점으로 손꼽힌다”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7년 대비 5년 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도로 발전된 ICT 부문과 꾸준히 성장 중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해진 국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핀테크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왔다”며 “핀테크 스타트업 수는 2016년 138곳에서 지난해 456곳으로 몇 배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홍콩을 대표하는 AI 기반 회사들로 고객 맞춤형 온라인 대출 제안 플랫폼인 ‘WeLab’과 답러닝 전문 ‘SenseTime’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생명공학 부문 역시 홍콩의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홍콩은 이미 ISI의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 핵심과학지표)로부터 세계 임상 의학 분야 최고 점수를 받은 의과 대학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홍콩은 중국과의 지리·경제적 연관성을 활용한 수의 창출과 함께 자체 주도적인 산업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응 부청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홍콩 정부는 2017년 12월 홍콩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개년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모빌리티, 리빙, 환경, 시민, 정부, 경제 등 6가지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세계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홍콩을 월드클래스 수준의 스마트 시티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시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올해 8590원보다 16.4%나 높은 시급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나온 최초 요구안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좁혀지겠지만, 금액 차이가 커 협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1만 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인 가구 생계비 조사 결과(월 224만 원)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근거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고,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일부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고, 고시시한이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지지만 그동안의 과속 인상이 낡은 부작용이 너무 컸다.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로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올해 8590원까지 3년간 32.8%나 올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는 충격을 가져왔다. 노동집약 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

이거나 사업장 문을 닫았다.

2018년 16.4%나 오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30%가량 줄어들었다는 실증적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쳤다. 수출과 내수가 극도의 부진에 빠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다.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유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와 감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중소기업이 5곳 중 3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편의점 업계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은 작년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는 현재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상태라고 주장했다. 점주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법집행이 되거나 폐업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추락하는 경제, 기업의 수용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수준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난 3년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그걸 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직 16.5%(2019년)에 이르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팬데믹 시대 사회적 가치 보여준 ‘미안해요 리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세계가 한국을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바로 물샷틈없는 배달 물류 시스템이었다. 미국처럼 사재기로 슈퍼마켓이 거덜 날 일도 없었고, 방역 중무장을 하고 생필품을 사러 위험한 거리로 나서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 일용할 양식과 생필품을 집 앞에서 편히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택배기사들이 입에 단내 나게 뛰어다녔던 척박한 노동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회파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켄 로치 감독이 이번에는 택배를 직업으로 한 평범한 남자의 일상에 주목했다. 주인공 리키(크리스 하친)는 배달업을 새로 시작했고 배달을 하기 위해선 차가 필요했다. 결국 그는 직업 간병인인 아내 애비(데비 허니우드)의 차를 팔아 새 차 구입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했고 매달 할부금을 갚기 위해 엄청난 중노동을 해야만 한다. 거기에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지고 그를 둘러싼 사면팔방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하다. 이대로 삶의 끈을 놔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는 어떻게 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족과의 화해는 가능하기라도

할까? 영화판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다시 돌아온 켄 로치 감독은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영국 택배 노동자의 지리멸렬한 삶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와 가족과 직장 생활을 소재로 하여 서사의 정서적 공감대를 엮어내는 솜씨는 그가 아직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아님을 보여준다.



개인의 비극을 통해 사회의식의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줬던 그는 팬데믹을 겪고 있는, 아니어쩌면 항상 마스크를 상비하

고 역병과 싸워야 하는 인류에게, 그럼에도 여전히 가져야 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전해 준다. 그렇다고 선불리 어של된 희망이나 비전을 보여 주려고 하지 않는다. 영화는 그저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 줄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엔 가슴 한편을 눈물로 적시게 한다. 원제는 ‘Sorry, We Missed You’인데 수취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때 택배인이 남기는 메모다. 최고의 폭염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리키’들에게 메모를 남기고 싶다. “시원한 물 한잔 드시고 가세요.”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흉내만으로는 넘볼 수 없는 LG만의 압도적인 혁신기술

국내 유일
81개의 특허기술
LG트루스팀

국내 최초
원바디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세계 최초¹⁾
차원이 다른 화질
올레드TV

지금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2020 으뜸 효율가전 쇼핑대전

2020. 6. 1 - 7. 31

❖ '으뜸 효율가전' 쇼핑 기획전

- 으뜸 효율가전 환급대상 모델 동시구매 시 추가캐시백
- 휘센 에어컨의 다양한 으뜸 효율 모델 구매 시 으뜸 효율 환급과 최대 45만원 추가캐시백 (2020년 출시, 듀얼프리미엄 / 스페셜 / 빅토리 스탠드형 에너지 3등급 적용 모델 기준)

❖ '건강관리가전 스팀' 구매 혜택전

건강관리가전 스팀 제품 3종(스팀 건조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과 건강관리가전 타제품 동시구매 시 추가캐시백 및 혜택

❖ 2020 상반기 히트상품 특별전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사랑받은 모델에 대한 특별가 혜택 (올레드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한정 수량 운영)



1) 2013년 1월 올레드TV 138cm 화면 상용화 출시 기준

※ 국내 유일 트루스팀 2020년 6월 기준 ※ 국내 최초 워시타워 2020년 4월 출시 기준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모델에 한하며 상세한 혜택은 판매매장별 유통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해주세요